

연구보고 08-R01-1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1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책임연구원 : 이경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임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박창남(나사렛대학교 · 교수)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 교수)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 비행, 노동시장 참여, 학업성취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음.
- 청소년 빈곤에 대한 사회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음.

2. 연구내용

- 빈곤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빈곤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 빈곤이 청소년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 빈곤이 청소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3. 연구결과

- 첫째,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이 객관적으로 빈곤하거나 주관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느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더 호소하고 있으며, 우울감을 더 많이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이런 결과는 빈곤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빈곤에 대한 지원대책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함.
- 둘째, 빈곤경험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빈곤은 무

비행집단에 비교해 만성형 비행집단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성빈곤형 집단이 비행집단이 될 확률이 가장 높았고 비빈곤형 집단이 가장 낮았음. 이러한 결과는 빈곤청소년의 만성형 비행화를 예방하기 위해 빈곤에 대한 대책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셋째, 빈곤이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빈곤층의 노동시장 참여증가율이 비빈곤층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음. 빈곤이 주당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중3과 고1 시기에 빈곤청소년의 노동시간이 비빈곤청소년보다 더 긴 반면, 고2의 시기에는 비빈곤청소년의 노동시간이 오히려 더 길게 나타나 고2 시기에 노동시장내에서 빈곤청소년과 비빈곤청소년간의 구직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빈곤이 노동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중3 시기에만 빈곤청소년의 노동지속기간이 비빈곤청소년보다 길고, 그 이후에는 일하는 비빈곤청소년의 영향으로 노동지속기간의 차이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청소년은 비빈곤청소년에 비해 노동시장참여가능성이 높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빈곤청소년의 영향으로 원하는 만큼의 노동시간과 노동지속기간을 갖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하는 빈곤청소년을 위한 공공 일자리창출프로그램과 취업알선과 같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넷째, 빈곤이 청소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절대빈곤, 상대빈곤, 주관적 빈곤 모두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빈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정책적 학업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4. 정책적 제언

- 1) 빈곤을 감소를 위한 공적 이전소득 지원정책의 지속 강화 :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빈곤은 청소년들의 건강, 비행, 노동시장 참여, 학업성취 등에 강한 영향을 미쳐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빈곤 청소년들의 건강, 비행, 노동시장 참여, 학업성취 등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적 이전소득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가구빈곤률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함. 따라서 첫째, 빈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근본적인 방향에서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의 지속적 강화가 있어야 할 것임. 둘째,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의 지속적 강화와 함께,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함.

- 2) 사적 이전소득 강화책으로서의 기부문화의 활성화 : 공적 이전소득 정책과 함께 민간 사적 이전소득의 활성화도 함께 도모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검토 등 공적 이전소득 정책과 함께 사적 이전소득 강화를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가 문화화되어야 함. 둘째,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기때부터 기부 교육을 통한 기부문화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문화로 자리잡게 할 필요가 있음.
- 3) 일하는 빈곤 청소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 청소년 탈빈곤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으로 빈곤가구의 가구주들에 대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외에 빈곤 청소년들 중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일하는 빈곤 청소년들에게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됨. 빈곤 청소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빈곤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것이 필요함.
- 4) 빈곤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학업 지원 강화 — 각종 start 사업의 강화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층 청소년들은 빈곤 때문에 건강문제, 비행문제, 학업문제 등 경제적인 문제 이외의 문제에도 종합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따라서 빈곤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현금지원 및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같은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의료, 비행예방, 학업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바람직할 것임. 따라서 빈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공사적 이전소득의 지원, 적극적 일자리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방안 이외에 희망스타트, We Start사업 등 각종 start사업을 통한 건강서비스, 학업지원, 비행예방과 같은 각종 종합적인 발달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 지원되어야 할 것임.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II. 이론적 논의	
1. 빈곤의 개념	9
2. 빈곤과 청소년의 건강	10
3. 빈곤과 청소년의 비행	13
4. 빈곤과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22
5. 빈곤과 청소년의 학업성취	25
III. 분석결과	
1. 조사개요	31
2. 빈곤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	56
3. 빈곤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64
4. 빈곤이 청소년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78
5. 빈곤이 청소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95
IV.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103
2. 정책적 제언	106
참고문헌	111

표 목차

<표 III-1> 중2 패널 2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33
<표 III-2> 중2 패널 3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34
<표 III-3> 중2 패널 4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35
<표 III-4> 중2 패널 5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36
<표 III-5> 년도별 가구균등화 지수	39
<표 III-6> 년도별 가구규모별 월최저생계비	39
<표 III-7> 주요기관 또는 국가들의 상대빈곤선	41
<표 III-8> 빈곤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58
<표 III-9> 빈곤이 심리적·정신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	61
<표 III-10> 빈곤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63
<표 III-11>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을 통한 비행발달계적의 모형 적합도와 집단분포	65
<표 III-12> 비행발달계적 집단의 빈곤여부, 성별, 결혼가족 유무 관련 기술통계	67
<표 III-13> 다항로짓분석을 통한 비행 발달계적 유형에 대한 빈곤의 영향 (전체집단)	69
<표 III-14> 다항로짓분석을 통한 비행 발달계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전체집단)	70
<표 III-15> 다항로짓분석을 통한 비행 발달계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비빈곤집단)	71
<표 III-16> 다항로짓분석을 통한 비행 발달계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빈곤집단)	73
<표 III-17>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을 통한 빈곤발달계적의 모형 적합도와 집단분포	74
<표 III-18> 빈곤 발달계적 집단의 성별, 결혼가족 유무 관련 기술통계	76
<표 III-19> 빈곤발달계적에 조건화된 비행발달계적의 전이확률 ..	77
<표 III-20> 빈곤변수별 노동시장참여율	79

<표 III-21> 빈곤변수별 평균 주당노동시간	80
<표 III-22> 빈곤변수별 평균 노동지속기간	81
<표 III-23> 절대빈곤A가 노동시장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	82
<표 III-24> 절대빈곤B가 노동시장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	83
<표 III-25> 상대빈곤A가 노동시장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	84
<표 III-26> 상대빈곤B가 노동시장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	85
<표 III-27> 절대빈곤A가 주당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87
<표 III-28> 절대빈곤B가 주당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88
<표 III-29> 상대빈곤A가 주당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89
<표 III-30> 상대빈곤B가 주당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90
<표 III-31> 절대빈곤A가 노동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91
<표 III-32> 절대빈곤B가 노동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92
<표 III-33> 상대빈곤A가 노동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93
<표 III-34> 상대빈곤B가 노동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94
<표 III-35> 빈곤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중2)	96
<표 III-36> 빈곤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중3)	97
<표 III-37> 빈곤이 희망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중2)	98
<표 III-38> 빈곤이 희망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중3)	99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아동 절대 빈곤률이 2001년 5.4%, 2002년 4.4%, 2003년 8.9%, 2004년 8.3%, 2005년 9.0%, 2006년 8.5%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의 상대빈곤률도 중위소득 50% 기준에서 살펴봤을 때 2001년 9.9%, 2002년 9.7%, 2003년 12.6%, 2004년 12.7%, 2005년 12.4%, 2006년 11.0%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보건복지부, 2007). 즉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초반에 비해 빈곤가구에 속해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빈곤가구에 속해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빈곤가구에 속해 있는 아동청소년들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빈곤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우선 빈곤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 생활을 제한하여 인간의 생존 자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빈곤으로 인한 부족한 영양공급과 충분하지 못한 의료시설 이용은 인간의 건강한 삶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빈곤은 생계형 비행, 범죄의 발생 등 사회적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인 통합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특히 성장기인 청소년들에게 빈곤은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사회화를 성취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더 많은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빈곤으로 인한 아동·청소년기 영양결핍과 불균형은 발육부진·발달지체를 낳을 수 있고 성인기에 골다공증, 당뇨, 비만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장기적으로 열악한 건강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Pollite et al., 1985; 성주현, 2003). 빈곤은 청소년들에게 우울·불안 등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낳

을 수도 있다. 또한 빈곤은 빈곤청소년들로 하여금 다양한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비행, 학업성취의욕 저하 등 향후의 진로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빈곤청소년들의 증가현상은 빈곤 청소년들에게 성장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즉, 빈곤가구 청소년들의 증가현상은 청소년들 개인적인 측면에서나 사회적 측면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청소년의 건강, 비행, 생계형 노동시장 참여,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과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빈곤이 청소년들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동일표본 반복추적조사의 기법으로 조사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2패널 1-5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이 청소년들의 건강, 비행, 생계형 노동시장 참여, 학업성취 등 청소년 발달과업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발달을 가로막는 청소년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해 보고 청소년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첫째, 다음의 II장에서 빈곤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 이 글의 분석주제인 빈곤과 청소년의 건강, 빈곤과 청소년의 비행, 빈곤과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빈곤과 청소년의 학업성취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둘째, III장에서 분석자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빈곤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절대빈곤변수와 상대빈곤변수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빈곤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빈곤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빈곤이 청소년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빈곤이 청소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IV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중다전망적 패널조사설계(multi point prospective panel survey design)하에 2003년부터 동일표본 반복 추적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1-5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의 선정 및 분석방법은 분석주제에 맞춰 다양하게 실시하였다.

빈곤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건강문제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4차년도 자료인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빈곤을 독립변수로 주관적 건강상태, 심리적·정신적 문제, 우울을 종속변수로 삼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빈곤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단으로 유형화하기 위해 1-5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빈곤을 독립변수로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을 통한 비행발달궤적 유형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빈곤이 청소년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참여가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2-4차년도 자료인 중3-고3까지

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빈곤을 독립변수로 노동시장 참여여부, 주당노동시간, 노동지속기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 및 OLS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빈곤이 청소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곤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1-2차년도 자료인 중학교 2-3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빈곤을 독립변수로 학업성적, 희망교육수준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1. 빈곤의 개념
2. 빈곤과 청소년의 건강
3. 빈곤과 청소년의 비행
4. 빈곤과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5. 빈곤과 청소년의 학업성취

II. 이론적 논의

1. 빈곤의 개념

빈곤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의 개념분류를 따라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절대적 빈곤의 개념과 이를 바탕으로 한 빈곤선 책정의 방법에는 기본적인 욕구 방법이 대표적이다. 기본적인 욕구 방법은 빈곤을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빈곤선은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에서 결정된다. 이 방법은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를 안고 있다. 보통 경험적으로는 월평균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로 나눈 욕구소득비에 기초하여 산출하고 있다(김광혁, 2006).

절대적 빈곤의 개념이 빈곤을 일반 사회구성원의 생활수준과는 별개의 생존 개념으로 본 반면에, 상대적 빈곤은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 하에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통상적으로, 상대적 빈곤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평균소득의 비율방법과 중위소득의 비율방법이 있다. 이것은 절대적 빈곤의 최대 약점인 전반적 생활수준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점을 해결한다(Abel Smith and Townsend; Fuchs, Rainwater, Lansley, 1994).

주관적 빈곤 개념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간주하는 인식수준을 지칭한다. 빈곤은 결국 개인들의 안녕(well-being)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전술한 ‘객관적’인 기준보다 빈곤을 정의하는 데 더 중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빈곤 연구 및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는 개념은 절대적 빈곤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적 빈곤 개념이 중요시되는 경우도 있다.

2. 빈곤과 청소년의 건강

청소년기는 일생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은 시기로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건강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등교거부, 스트레스 등이 증가하고 있어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청소년 시기가 반드시 건강한 시기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2005년에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의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2.7%, 우울감 경험률은 12.2%, 자살 사고(思考)율은 13.2%로 정신건강 문제가 많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많은 연구들은 흡연, 음주, 부적절한 식습관,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위험행태에 주목하였다. 사회경제적 변수는 이러한 요인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주요 관심대상이라기 보다는 통제변수로 고려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강영호 외, 2005; 이근복·정우석, 2007).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청소년 건강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즉 흡연, 음주, 식습관,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는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지만,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 스스로가 결정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빈곤한 청소년들의 환경은 청소년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oks-Gunn & Duncan, 1997; 김영아, 2006). Brooks-Gunn & Duncan(1997)의 연구에서는 비빈곤 아동의 55.2%가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데 비해, 빈곤 아동은 37.4%가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하였다.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빈곤 아동에서 11.7%, 비빈곤 아동에서 6.5%였다. Chen et al.(2005)은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1994) 횡단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 청소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건강

세상네트워크(2004)가 서울의 저소득 밀집지역의 공부방 학생 162명과 서울지역 소재 2개 초등학교 학생 391명을 대상으로 건강수준을 조사한 결과, 자녀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부방 학생의 경우 36.3%로 일반 초등학교 학생 72.4%의 절반에 불과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이 양호한 아동 및 청소년의 비율이 낮았다.

또한 많은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에게서 우울 성향이 많고(Petti & Larson, 1987; Williamx & Poling, 1989; 김용수, 1991; Harrington, 1993; 권오은, 1999; 박경애·김은영, 1999, 이현진, 2001), 빈곤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더 많이 호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Brooks-Gunn & Furstenberg, 1989; Duncan & Brooks-Gunn, 1997; Duncan et al., 1994; Haveman & Wolfe, 1994; WHO, 1997). 김성일·정용철(2001)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2학년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우울검사를 실시하여 점수분포가 양극단에 위치한 두 집단을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으로 선정한 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집단이 비우울집단에 비해 가정의 월수입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2007)가 2005년에 전국 6만명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5.6%이며, 상위 계층 가정 청소년의 경우 43.6%인데 비해, 하위 계층 가정 청소년의 경우는 49.9%로 사회계층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근복·정우석(2007)은 청소년의 건강 불평등 양상을 분석한 결과, 학생이 인지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이러한 경향은 가구 소득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은 학교에서 보다 심화되었다고 보고하고, 원인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Goodman et al.(2003)은 소득 수준이 높은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소득 수준이 낮은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이근복·정우석(2007)의

연구와 반대되는 결과인데, Goodman et al.(2003)은 소득 수준이 높은 학교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중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제공되기 쉽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기의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는 보고(West, 1988; West et al., 1990; Macintyre & West, 1991; Glendinning et al., 1992, Williams et al., 1996)도 있다. 구자경(2004)도 중·고등학생 1,19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우울, 불안, 적대감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한 바 있다. 청소년기에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West(1997)는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은 감소하는 반면, 자립성향과 외부활동, 청소년기 또래문화의 영향력이나 동료집단의 역할 등이 증가하는 것을 지적하였다(최용준 외, 2007). 강영호 외(2005)는 방법론적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청소년기는 생물학적으로 건강한 시기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건강 차이를 밝히기 어렵고, 청소년이 보고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 정보는 수집하기 어렵거나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빈곤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빈곤이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Becker & Tomes(1986)는 가정의 경제적 자원의 결핍은 아동의 발달기회를 제한한다고 하였다. 부모는 아동에게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이러한 투자가 교육, 건강, 의식주 등의 형태로 아동의 미래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Conger 등(1992)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부부갈등과 자녀에 대한 무관심을 유발한다고 보고, 경제적 어려움이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오경자·문경주(2006)가 빈곤가정 밀집지역 중학교 1,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위험요인, 부모자녀관계를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평가하고 1년 후에 우울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평가한 연구가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빈곤이 부모의 부부갈등, 문제성 음주 등 가족위험요인 및 부모자녀관계를

매개변인으로 우울 및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빈곤의 영향은 소득의 높고 낮음만이 아니라, 빈곤을 경험하는 기간이나 시기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빈곤을 경험하는 시기가 어릴수록, 오랜 기간 빈곤을 경험할수록 빈곤의 결과는 더 부정적일 수 있다(구인회, 2005; 김광혁, 2006; 임세희, 2007). Mcleod & Shanahan(1996)이 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of Youth(NLSY)의 1986년, 1988년, 1990년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오랜 기간 지속되는 빈곤이 일시적인 빈곤보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3. 빈곤과 청소년의 비행

빈곤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단순히 받아들이면 모든 빈곤아동은 문제청소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에는 빈곤하지만 적응을 잘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빈곤아동·청소년들이 많이 존재한다. 빈곤영향의 부정적 메커니즘만으로는 이들을 설명할 여지가 없다.

단순한 위험모형에서는 빈곤아동·청소년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로 빈곤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한다(Huston, 1991; McCormick & Brooks-Gunn, 1989; Parker et al., 1988). 빈곤아동·청소년들은 출생시 저체중,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실직, 우울, 사회적 지지의 결핍,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 또는 부적절한 양육행동과 태도 등과 같은 생물학적·환경적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빈곤관련 요인들은 아동·청소년발달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Brooks-Gunn, 1995; Huston, 1991; Liaw & Brooks-Gunn, 1994; McLoyd, 1998). 위험모형은 동일한 빈곤 상황에서도 실제 경험하는 위험요인의 개수와 종류에 있어 상이할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빈곤아동·청소년들간의 적응정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로는 위험에 많이 노출될수록 아동·청소년의 적응 수준은 떨어져야 한다. 현실에서는

빈곤이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도 잘 적응해가는 아동청소년이 존재한다. 위험모형은 고위험의 상황에서도 역량과 강점을 회복하고 더 높은 발달수준을 보이는 적응유연성(resilience)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빈곤아동청소년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에서 점점 보호요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빈곤상황에서 적응의 개인적 차이를 보다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Hernandez, 1993; 박현선, 1998).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가족 중 적어도 한 사람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양육자와 기본적인 신뢰를 통해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했으며, 통제와 애정이 적절하게 균형잡힌 민주적인 양육태도가 이루어질 때, 적응유연성이 발달할 수 있는 가족분위기가 된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가치를 공유하고, 부모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며, 가족내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며, 가족응집력이 높고 부모 및 자녀의 역할이 잘 규정되어 있는 가정이 보호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armezy, 1991; Kirby & Fraser, 1997; Rutter, 1990; Werner, 1990; Werner & Smith, 1992). 이외에도 학교 분위기 자체가 학생의 욕구에 반응적이고 분명한 규범을 가지고 있어 예측가능한 환경이 되어야 하며,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가 존재하고, 아동청소년이 정규교과과정 및 방과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심리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armezy, 1993; Werner, 1990; 정익중, 2002).

빈곤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들과 보호요인들이 점점 밝혀지고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태도, 또래집단의 유형과 상호작용, 지역사회 사회적 지지 또는 사회통제와 같은 특성들이 빈곤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다양한 위험 혹은 보호요인들의 빈곤과의 통계적인 상관관계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빈곤과 아동청소년발달의 인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단지 위험요인이든 보호요인이든 요인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빈곤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내재된 과정이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빈곤아동청소년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맥락적 이해에 도움을 주는 생태체계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1) 개인요인

사회적 정보처리이론(social information-processing theory)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비행은 특정 상황에서 갈등적이거나 일탈적인 해결책을 피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인지능력의 결핍 때문에 일어난다(Dodge, 1991, 1993; Crick & Dodge, 1994; Chung, 2004).

빈곤가족은 인지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책, 장난감, 컴퓨터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를 인지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시키기 어렵다(Mayer, 1997; Downey, 1994; Gerard & Buehler, 1999; Seccombe, 2000; 정익중, 2003).

따라서 빈곤은 인지능력의 부족이나 학업성취의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보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인지능력이 높으면 특정 갈등상황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생각해내고 그 중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아동청소년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공격성이 높으면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cues)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신호에만 선별적으로 관심을 집중한다(Dodge & Newman, 1981; Gouze, 1987). 그리고 신호의 의도를 해석하는 데도 문제가 있으며, 무슨 신호든 그 의도가 적대적인 것으로 귀인시켜 버리는 편견(attributional bias)을 보인다(Dodge & Feldman, 1990; Dodge & Coie, 1987). 또한 초기 반응이 성공적이지 않았을 때 다른 종류의 반응을 찾아내는 것도 어려워한다(Rubin, Bream, & Rose-Krasnor, 1991). 이러한 아동청소년들은 비행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비행을 가장 적절한 반응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Garber, Quiggle, Panak, & Dodge, 1991; Dodge, Bates, & Pettit, 1990).

빈곤아동청소년들은 수준 높은 단어의 사용이 제한되고 글씨에 대한 흥미

가 떨어지는 등 언어발달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이재연·백정재, 1997; 권중돈, 2000). 아동청소년의 낮은 언어능력은 대다수의 빈곤부모들이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등 불규칙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시간이 없거나 피곤하고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자녀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어능력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면 갈등상황에서 언어적 방법을 통한 이해와 설득보다는 강압과 폭력과 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쉽다.

빈곤아동청소년은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실시한 많은 연구에서 중산층 아동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지능을 보인다(Korenman, Miller, & Sjaastad, 1995; Peters & Mullis, 1997; Smith, Brooks-Gunn, & Klebanov, 1997). 그러나 빈곤아동청소년도 높은 지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높은 지능은 빈곤아동청소년의 적응능력을 향상하는 중요한 보호요인 중의 하나이다(Werner & Smith, 1992; Luthar, 1999). 지능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은 높은 문제해결능력과 대처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행동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뿐만 아니라 쉽게 만족을 지연시키며 충동을 억제한다.

천성적으로 착하고 기질적으로 순한 영유아는 아동기에 빈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적응유연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Werner & Smith, 1992). 반면 까다로운 기질은 빈곤과 관련된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아동청소년은 빈곤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인내심이 약해진 양육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한층 악화시킨다(Farber & Egeland, 1987). 또한 빈곤아동청소년에게도 자아존중감이 비행, 학업성취, 정신건강, 또래집단이나 성인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보호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icchetti, Rogosch, Lynch, & Holt, 1993).

2) 가족요인

부모는 보호와 애정을 통하여 자녀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

고,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이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빈곤이다(Plotnick, 2000). 빈곤가정의 자녀들은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의료적 보호나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빈곤아동·청소년은 부모가 수행해야 할 성인역할을 대신 맡게 되는 등,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의 역할 이외에 가사 부담을 더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

빈곤이 아동·청소년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주로 가족의 특성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Lemper, Clark-Lempers & Simons, 1989; Parker, Greer & Zucherman, 1988; Sampson & Laub, 1996). 빈곤한 사람들은 열악한 생활조건과 경제적 어려움, 자신들이 처해있는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나 재화·서비스를 필요할 때 가질 수 없다는 무력감, 수치감, 혹은 자존감의 상실 등으로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빠져들기 쉽다(Adler et al., 1993; McLoyd, 1998). 이러한 부모의 스트레스는 빈곤이 아동·청소년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부모의 스트레스와 우울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부부간이나 가족간 갈등을 유발한다(Conger et al., 1994; Liaw & Brooks-Gunn, 1994; McLoyd, Jayaratne, Ceballo, & Borquez, 1994; Brooks-Gunn & Duncan, 1997).

비행에 관한 일련의 연구에서 빈곤이 아동·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기보다는 가정내의 부모 요소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McLoyd & Wilson, 1991). 빈곤가정의 부모들은 대개 생계를 위한 장기간 노동으로 기본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한 노동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여 자녀와 제대로 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인다. 빈곤가정에서 자녀에게 제공하는 환경적 자극의 질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중산층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빈곤부모들은 중산층 부모에 비해 유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적었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반면 자녀의 기능발달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적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이영·신은주·나중혜, 1995). 또한 빈곤은 부모의 지도감독이나 양육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빈곤부모들은 훈육이 비일관적이거나 위협적·강압적이며, 부모·자녀간 애착이 약하다. 빈곤부모들은 자녀의 행동 자체 혹은 자녀가 어떤 친구들과 어디서 노는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못하고, 언어적인 훈계보다는 신체적인 체벌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의 수준 역시 낮다(McLeod & Shanahan, 1993; Hanson, McLanahan, & Thomson, 1997; McLoyd, 1998; Conger, Conger, & Elder, 1997).

빈곤가족들은 가족내 갈등이나 공격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가족 상호작용은 가족 성원들에게 심리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의 스트레스는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아동학대 발생율은 7배나 높았으며(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1988), 발생하는 학대의 수준도 저소득층에서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Downs, Costin, & McFadden, 1996), 특히 방임의 비율이 높았다(Sedlak & Broadhurst, 1996; Pecora et al., 2000). 피학대, 방임아동은 나이가 들수록 학업성취가 떨어지고, 정서적 문제, 성 문제, 알코올 및 약물중독을 경험하며, 심각한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English, 1998; Starr, MacLean, & Keating, 1991; Pecora et al., 2000).

3) 학교요인

학교는 아동청소년이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며 아동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신체적·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적응은 성인기의 독립과 사회적 성취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보호 요인임이 여러 연구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학교에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나 또래집단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박영애, 1995; 한중혜, 1996). 교사와 친구들의 지지는 아동청소년의 적응과 안녕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며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지지의 부족은 아동청소년의 학업 및 학교에 대한 무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친구의 지지는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주며 또래로부터 지지 부족은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ivin & Begin, 1989; Crick & Grotpeter, 1996; Patterson, Kupersmith, & Griesler, 1990). 또래관계에서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아동청소년은 그 이후 성장하여서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Coie, 1990).

빈곤아동청소년은 문제해결에서 언어적 방법보다는 물리적 방법을 선호하며, 친구들을 때리고, 욕을 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등의 이유로 친구 및 교사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Mayer, 1997; Seccombe, 2000).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아동청소년들은 특히 또래집단과의 관계에서 소외되기 쉽다.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는 좀 더 심각한 비행의 원인인 동시에 초기 부적응 행동의 결과이기도 하다(Coie & Miller-Johnson, 2001).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된 공격적 아동청소년들은 일반적인 공격적 아동청소년보다 훨씬 더 만성적 비행에 빠져들 위험이 높다. 청소년기가 되면 소외받던 아동청소년들끼리 비행 또래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또래집단은 심각한 비행의 좋은 훈련장소가 된다(Patterson & Bank, 1989; Patterson, Capaldi, & Bank, 1991).

정보처리 단계에서의 여러 형태의 결핍도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를 가져온다. 이러한 소외는 항상 타인의 신호를 적대적인 것으로 귀인시켜 버리기 때문에 좀더 심각한 형태의 반응적인 공격성을 가져오게 된다. 귀인 편견으로 인해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아동청소년이 다른 아동청소년들의

행동에 좀 더 공격적이고 보복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다른 아동청소년들도 그 소외된 아동청소년을 좀 더 심하게 집단따돌림 시키도록 한다(Hymel, Wagner, & Butler, 1990; Perry, Kusel, & Perry, 1988). 이는 부정적인 정보처리의 모든 단계가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좀 더 심각한 비행으로의 이행을 가져온다.

4) 지역사회요인

빈곤가족은 지역사회 해체나 사회적 소외로 특징지어지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Chung, 2004). 지역사회 해체는 범죄, 실업 등으로 그 지역사회에 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집합적인 지도감독이 불가능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간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부족한 경우를 말하고, 사회적 소외는 주류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개인과의 상호작용의 부족으로 그 지역사회에 사는 아동청소년이 따를만한 역할모델이 존재하지 않고 문화적 학습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Sampson, 1991; Sampson & Wilson, 1994; Wilson, 1991). 이러한 지역사회에 살게 되면 긍정적 역할모델의 결핍과 부정적 역할모델의 과잉, 사회적 자본의 부족과 사회규범의 약화 등으로 비행에 빠져들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된다(Coleman, 1988; Hagan, 1994; Herrenkohl et al., 2001).

가정에서 부모가 적절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지역사회가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맡아야 한다. 박현선(1998)은 빈곤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소가 부정적·갈등적 가족과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빈곤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지역사회 등으로부터 적절한 지지와 관심을 받으면 부정적인 영향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고하면서 빈곤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해 강조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빈곤아동청소년에 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관리되는 빈곤아동청소년은 비행문제를 경험하지 않거나 비행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익중 외, 2005). Moffitt(1993)도 빈곤 상황에서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들이라 하더라도 성장하는 가운데 부모, 기타 양육자, 지역사회 주민들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적절한 관심과 반응을 보이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만,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대개 증폭되고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은 감소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빈곤아동청소년은 개인에 따라 빈곤에 대한 취약성과 빈곤 위험에 대한 극복 가능성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Moffitt(1993)과 Patterson(1996)은 비행을 질적으로 상이한 생애주기 만성형(life-course persistent) 비행과 청소년기 중단형(adolescence-limited) 비행으로 분류하였다. 생애주기 만성형 비행은 아동기 초기에 비행의 조짐을 보이다가 점점 더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생애주기 동안 계속 다른 형태 혹은 더 심각한 형태의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Patterson, Reid, & Dishion, 1992). 청소년기 중단형 비행은 통계적으로 비행빈도가 높아지는 아동기 말기나 청소년기 초기에 비행 또래집단의 영향 등으로 비행을 저지르다가 청소년기 동안에 비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Fergusson, Horwood, & Nagin, 2000; Patterson & Yoerger, 1997).

미국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Chung, Hill, et al., 2002; Chung, Hawkins, et al., 2002)에서 빈곤아동청소년의 비행에는 5가지 형태의 발달궤적-만성형 비행집단(chronic offender), 점증형 비행집단(escalator), 중단형 비행집단(desister), 후발형 비행집단(late onsetter), 비(非)비행집단(nonoffender)-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렇게 발달유형이 도출되면 어떠한 위험요인이 빈곤아동청소년을 심각한 만성형이나 점증형 비행집단으로 발달하도록 영향 미치는지, 혹은 어떠한 보호요인이 빈곤아동청소년을 적응유연성이 높은 비(非)비행집단으로 계속 남아있도록 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빈곤청소년에도 전혀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비(非)비행집단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들이 비(非)비행집단으로 남아있도록 하는데 가족응집력이나 부모의 양육기술 등과 같은 가

족관련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g, Hill, et al., 2002; Chung, Hawkins, et al., 2002; Chung & Hawkins, 2002).

이렇게 빈곤아동청소년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횡단적 상관관계를 통해 밝혀진 빈곤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일반화하기보다는 빈곤이 아동청소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다양한 개념 및 모형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빈곤의 영향을 과정이나 메커니즘 개념을 통해 종단적으로 살펴보거나, 일부 빈곤아동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적응유연성의 개념이나 관찰대상중심적(person-centered) 모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빈곤아동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최근에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만큼 국내 연구는 외국 연구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빈곤아동청소년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주로 외국문헌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빈곤아동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기초 역학조사나 장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우리나라 빈곤아동청소년정책이나 서비스는 외국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화적 배경과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실증 자료가 부재한 가운데 정책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그만큼 시행착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체계적인 실증연구를 통해 빈곤아동청소년에 대한 이론적 모형이 한국적 상황에서는 어떻게 변용되고 어떠한 내용들이 추가되고 제외되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에 대한 전국적인 규모의 패널조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목적에 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4. 빈곤과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

청소년의 노동시장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국내의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가족의 소득, 부모의 교육과 같은 가족의 특성, 학교성적, 학교생활만족도, 고교계열과 같은 학교의 특성, 그리고 소비정도, 가출경험, 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들이 미치는 영향들을 검증하였다(이철위·박창남·정혜영, 2000; 장원섭, 2001; 김기현, 2003; 양정호, 2003).

위와 같은 여러 연구들 중에서 청소년의 노동시장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검증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가족의 소득이다. 가족의 소득이 많을수록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용돈이나 필요시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나므로, 경제적 이유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줄어들게 되며, 반대로 가족의 소득이 적을수록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제한되므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소득을 일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층과 비빈곤층으로 나누어 두 집단간에 있어서 청소년노동시장참여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빈곤가족의 청소년과 비빈곤가족의 청소년이 노동시장참여율의 차이가 있는지, 주당노동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노동지속기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빈곤가족청소년이 노동시장에서 비빈곤가족 청소년보다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최근 몇 년간의 청소년노동시장참여 경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노동시장참여는 비행과 학교부적응을 증가시키고, 학교성적을 낮춤으로써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창남, 2005; 박창남, 2006). 특히 경제적 이유로 인한 노동시장참여는 청소년에게 더욱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예성(2004)은 노동시장참여의 동기를 단순한 물질적 획득을 희망하는 ‘물질 동기’와 성장이라는 목적가치를 갖는 ‘성장 동기’로 나눈 뒤, 두 집단에서의 노동경험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성장 동기’ 집단이 ‘물질 동기’ 집단보다 높은 가족과의 친밀도, 긍정적 수업태도, 낮은 비행의 특징을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빈곤이 ‘성장 동기’ 보다는 ‘물질 동기’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빈곤은 청소년의 노동동기 뿐만 아니라, 노동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가족의 청소년이 비빈곤가족의 청소년과는 달리 성장과정에서 잦은 노동시장의 참여, 장시간의 주당노동시간과 노동지속기간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결국 빈곤가족 청소년의 노

동시장참여는 교육기회불평등과 빈곤의 재생산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노동시장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힌 국내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철위·박창남·정혜영(2000)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문화가 가장 큰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생활이 어려울수록,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중학생과 일반고생보다는 실업고생이, 군지역보다는 대도시지역에서 아르바이트 참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원섭(2001)의 연구에서는 가출경험이 있고 용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가정의 경제력이 낮을수록 시간제 취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계고 학생의 경우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오히려 시간제 취업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자료를 분석한 김기현(2003)의 연구에서는 부의 교육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시간제 취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 성적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같은 자료를 분석한 양정호(2003)에 의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일반계고 학생보다는 실업계고 학생이, 졸업후 진학보다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참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가족의 영향을 연구한 국외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Elder(1974)는 여러 가족 관련 요인들이 자녀들의 노동시장참여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면서, 경제적 박탈과 큰 가족규모는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나가도록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큰 규모의 가족은 가족의 1인당 경제적 자원을 줄이고, 가족의 욕구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Elder는 부모의 실업도 또한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밝혔다. 후속적인 연구들도 부모의 실업이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밝혀왔다(Root, 1984). Horan과 Hargis(1991)는 미국의 1890년대 가족수준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가족경제가 자녀들의 학교와 노

동시장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풍부한 가족의 경제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에 대한 낮은 수요는 자녀의 학교교육을 높이고, 노동시장에의 참여율을 낮춘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와는 달리 가족이 자녀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적 토대로 작용하고 있음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있다. Borman(1991)은 가족과 친구라는 비공식적 연결망이 청소년들의 직업탐색에서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취업한 부모들은 더 많고, 더 유용한 연결망을 갖고 있어 자녀들이 직업을 가지는데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Schill, McCartin과 Meyer(1985)는 취업한 부모가 있다는 것, 특히 취업한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고용경험의 모델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Simon(1987)은 가족에서 취업한 어른이라는 사례는 청소년들의 학습경험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는다고 보았다. Keithly와 Deseran(1995)에 의하면, 가구의 구조적 특성과 가족 자원이 노동시장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양부모 가족유형의 자녀가 편부모 가족유형의 자녀보다 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고용지위, 부모의 인적 연결망과 같은 가족의 자원이 많을수록 자녀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간계급의 가족은 경제적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증대를 시도하는 반면, 빈곤가족은 소득공유, 자립, 할인구매와 같은 방법으로 경제적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5. 빈곤과 청소년의 학업성취

빈곤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발달과업 중 학업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구인회, 2003; 구인회·박현선·정익중, 2006;

김광혁, 2006).

가족의 빈곤은 부모가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제한하고 이는 공교육, 사교육, 학습도구의 구입 등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교육기회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Becker, G, 1964; Becker and Tomes, 1986; 구인회, 2003; 김광혁, 2006). 부유한 가족의 경우 가족의 소득수준이 의식주 등 필수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도 많은 비용이 남기 때문에 남는 비용을 여가, 아동·청소년의 교육에 지출할 개연성이 높다. 많은 비용을 들여 교육여건이 좋은 외국의 학교로 조기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좋은 공교육을 받게 하기도 하고, 사교육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결국 아동·청소년의 학업경쟁력 강화와 높은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빈곤가족의 경우 가족의 소득수준이 의식주 등 생계를 위한 필수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에 급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교육에 지출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국내외의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힘들며, 사교육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 전체의 생계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생계형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 참여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는 결국 빈곤 아동·청소년의 학업경쟁력 저하를 불러오고 다시 낮은 학업성취도로 이어지는 결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가족의 빈곤은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제한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또한 가족의 빈곤은 부부간의 불화, 잦은 다툼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nger et al, 1997; 구인회, 2003; 김광혁, 2006). 가족의 빈곤은 부부간의 애착 등 긍정적인 관계보다는 갈등, 불화 등 부정적인 관계를 낳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부모-자녀간의 애착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들의 갈등과 불화를 자주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정상적으로 평화적일 수가 없으며 이는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불안

정을 가져와 가족생활, 학업생활 등에 대한 애착과 전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에 기인한 부모들의 갈등과 불화는 아동·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떨어뜨려 결국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인 문제에 기인한 부모들의 갈등은 경제적인 해결에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관심, 지도, 시간 등을 소홀하게 되어 결국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도 저하를 가져오게 될 개연성이 크다. 즉, 가정의 빈곤은 부모의 애착관계의 위기를 불러오고 이는 심리적, 행위적인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족의 빈곤은 가족의 생존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에 대한 경제적 제약, 아동·청소년의 학업전념에 대한 사회심리적 제약을 통해 결국 빈곤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의 제한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이는 결국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내외의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가족소득 혹은 빈곤이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Brooks-Gun and Duncan, 1997; 구인회, 2003; 구인회·박현선·정익중, 2006; 김광혁, 2006). 학업성취에 미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족의 빈곤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Ⅲ. 분석결과

1. 조사개요
2. 빈곤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
3. 빈곤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4. 빈곤이 청소년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5. 빈곤이 청소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Ⅲ. 분석결과

1. 조사개요

1)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중다전망적 패널조사설계(multi point prospective panel survey design)하에 2003년 기준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향후 6년간 동일표본 반복 추적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1-5차년도 자료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는 2003년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 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에 의해 표본으로 뽑은 3,697명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3년 10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조사결과, 부모의 동의를 얻어 청소년들과 부모 모두를 성공적으로 조사한 경우는 3,697명의 93.3%인 3,449명이었고 이 가운데 남학생은 1,725명이고 여학생은 1,724명이었다.

2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 표본으로 구축된 3,4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4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조사결과, 청소년을 기준으로 1차년도 조사대상자 3,449명의 92.4%인 3,188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3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 표본으로 구축된 3,4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5년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조사결과, 청소년을 기준으로 1차년도 조사대상자 3,449명의 90.6%인 3,125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4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 표본으로 구축된 3,449명의 청소년

년들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6년 10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조사결과, 청소년을 기준으로 1차년도 조사대상자 3,449명의 90.5%인 3,121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5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 표본으로 구축된 3,4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조사결과, 청소년을 기준으로 1차년도 조사대상자 3,449명의 86.0%인 2,967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보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력, 가구수입 등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를 측정한 자료들의 경우, 청소년들이 부모의 정확한 학력, 정확한 가구수입 등을 알지 못해서 측정의 오류가 많았던 반면,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부모의 학력, 가구수입 등을 청소년들에게 묻지 않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직접 측정했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표 III-1〉 중2 패널 2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조사대상 패널수 ¹⁾	조사가능 패널수	조사성공 사례수	조사대상패널수 대비 조사성공 사례수(%)	조사가능패널수 대비 조사성공 사례수(%)
서울특별시	587	573	528	89.9%	92.1%
인천광역시	199	196	185	93.0%	94.4%
경기도	773	765	675	87.3%	88.2%
강원도	123	123	103	83.7%	83.7%
대전광역시	102	102	99	97.1%	97.1%
충청도	255	254	245	96.1%	96.5%
광주광역시	137	136	132	96.4%	97.1%
전라도	249	247	231	92.8%	93.5%
부산광역시	255	253	246	96.5%	97.2%
울산광역시	106	106	105	99.1%	99.1%
대구광역시	212	212	201	94.8%	94.8%
경상도	451	450	438	97.1%	97.3%
합계	3,449	3,417	3,188	92.4%	93.3%

1) 전학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지역별 조사대상 패널수 변동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사례수(3,188명)의 비율: 92.4%

※ 조사가능 패널수(3,417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 사례수(3,188명)의 비율: 93.3%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 사례수(3,106명)의 비율: 90.1%

※ 조사가능 패널수(3,417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 사례수(3,106명)의 비율: 90.9%

〈표 III-2〉 중2 패널 3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조사대상 패널수 ¹⁾	조사가능 패널수	조사성공 사례수	조사대상패널수 대비 조사성공사 례수(%)	조사가능패널수 대비 조사성공사 례수(%)
서울특별시	600	584	520	86.7%	89.0%
인천광역시	198	191	175	88.4%	91.6%
경기도	775	761	685	88.4%	90.0%
강원도	121	119	107	88.4%	89.9%
대전광역시	102	101	97	95.1%	96.0%
충청도	249	247	237	95.2%	96.0%
광주광역시	138	137	124	89.9%	90.5%
전라도	241	238	221	91.7%	92.9%
부산광역시	254	250	234	92.1%	93.6%
울산광역시	108	107	105	97.2%	98.1%
대구광역시	215	214	190	88.4%	88.8%
경상도	446	442	429	96.2%	97.1%
제주도	2	2	1	50.0%	50.0%
합계	3,449	3,393	3,125	90.6%	92.1%

1) 전학, 이사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지역별 조사대상 패널수 변동

-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사례수(3,125명)의 비율: 90.6%
- ※ 조사가능 패널수(3,393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사례수(3,125명)의 비율: 92.1%
-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사례수(3,081명)의 비율: 89.3%
- ※ 조사가능 패널수(3,393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사례수(3,081명)의 비율: 90.8%

〈표 III-3〉 중2 패널 4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조사대상 패널수 ¹⁾	조사가능 패널수	조사성공 사례수	조사대상패널수 대비 조사성공사 례수(%)	조사가능패널수 대비 조사성공사 례수(%)
서울특별시	597	573	503	84.3%	87.8%
인천광역시	199	190	174	87.4%	91.6%
경기도	784	762	689	87.9%	90.4%
강원도	121	120	114	94.2%	95.0%
대전광역시	100	96	94	94.0%	97.9%
충청도	248	242	237	95.6%	97.9%
광주광역시	136	134	129	94.9%	96.3%
전라도	240	234	220	91.7%	94.0%
부산광역시	257	252	235	91.4%	93.3%
울산광역시	108	105	104	96.3%	99.0%
대구광역시	216	213	194	89.8%	91.1%
경상도	441	435	426	96.6%	97.9%
제주도	2	2	2	100.0%	100.0%
합계	3,449	3,358	3,121	90.5%	92.9%

1) 전학, 이사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지역별 조사대상 패널수 변동

-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 사례수(3,121명)의 비율 : 90.5%
- ※ 조사가능 패널수(3,358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 사례수(3,121명)의 비율 : 92.9%
-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 사례수(3,077명)의 비율 : 89.2%
- ※ 조사가능 패널수(3,358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 사례수(3,077명)의 비율 : 91.6%

<표 III-4> 중2 패널 5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조사대상 패널수 ¹⁾	조사가능 패널수	조사성공 사례수	조사대상패널수 대비 조사성공사 례수(%)	조사가능패널수 대비 조사성공사 례수(%)
서울특별시	597	580	468	78.4%	80.7%
인천광역시	199	190	164	82.4%	86.3%
경기도	782	760	642	82.1%	84.5%
강원도	120	119	112	93.3%	94.1%
대전광역시	101	96	95	94.1%	99.0%
충청도	249	239	229	92.0%	95.8%
광주광역시	137	137	128	93.4%	93.4%
전라도	240	227	208	86.7%	91.6%
부산광역시	256	249	223	87.1%	89.6%
울산광역시	108	104	102	94.4%	98.1%
대구광역시	216	216	189	87.5%	87.5%
경상도	441	433	407	92.3%	94.0%
제주도	3	3	0	0.0%	0.0%
합계	3,449	3,353	2,967	86.0%	88.5%

1) 전학, 이사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지역별 조사대상 패널수 변동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 사례수(2,967명)의 비율 : 86.0%

※ 조사가능 패널수(3,353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 사례수(2,967명)의 비율 : 88.5%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 사례수(2,925명)의 비율 : 84.8%

※ 조사가능 패널수(3,353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 사례수(2,925명)의 비율 : 87.2%

2) 빈곤변수

여기에서는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빈곤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
변수는 개념적 정의에 따라 절대빈곤변수, 상대빈곤변수, 주관적 빈곤변수
의 세 유형으로 측정될 수 있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1) 절대빈곤 변수

절대빈곤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절대적 빈곤선인 년도별 가구규모별 월
최저생계비이하를 말한다.

절대빈곤변수는 보통 다시 두 가지로 측정되는데, 하나는 이 연구의 분석
대상 데이터인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년도별 가구규모별 월평균 가구소득
(KYPS자료)을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상의 년도별 가구규모별 월최저생계
비(보건복지부 발표자료)로 나눈 배율을 지칭하는 욕구소득비로 측정되었
다. 여기서 욕구소득비 ≤ 1 가 절대빈곤을 지칭한다.

다른 하나는 년도별 가구규모별 월평균 가구소득(KYPS자료) 중 년도별
가구규모별 월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발표자료) 기준 초과 및 이하를 지
칭하는 절대적 빈곤 무유변수로 측정되었다.

둘 다 절대빈곤변수를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변수이다.

- ① 절대빈곤A : 년도별 가구규모별 월평균 가구소득(KYPS자료)의 년도
별 가구규모별 월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발표자료) 이
하 기준 배율
: 욕구소득비(income to needs ratio) = 년도별 가구규
모별 월평균 가구소득(KYPS자료) / 년도별 가구규모별
월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발표자료)

1 : 욕구소득비 ≤ 1

2 : $1 < \text{욕구소득비} \leq 2$

3 : $2 < \text{욕구소득비} \leq 3$

- 4 : 3 < 옥구소득비 ≤ 4
- 5 : 4 < 옥구소득비 ≤ 5
- 6 : 5 < 옥구소득비 ≤ 6
- 7 : 6 < 옥구소득비

② 절대빈곤B : 년도별 가구규모별 월평균 가구소득(KYPS자료) 중 년도별 가구규모별 월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발표자료) 이하 기준 절대적 빈곤 무유

- 0(무) : 년도별 가구규모별 월 최저생계비 초과
- 1(유) : 년도별 가구규모별 월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변수의 생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A. 보건복지가족부 발표자료상의 년도별 가구규모별 월최저생계비의 산정(보건복지가족부 고사·보도자료, 각 년도)

- ① 1999년, 2004년, 2007년 전물량방식(Market Basket 방식)으로 계측조사 실시('04년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최저생계비 계측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
 - 2차에 걸쳐 생활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인가구(부40세, 모 37세, 자녀 11세, 자녀 9세)를 표준가구로 결정
 - 가구균등화지수(가구원수의 변화에 따른 지출액의 변화율) 결정
 - * 1999년 계측조사시 가구균등화지수 : 4인가구=1.000기준, 1인가구=0.349, 2인가구=0.578, 3인가구=0.795, 5인가구=1.137, 6인가구=1.283
 - * 제2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04.12.1)에서 가구균등화지수를 향후 5년에 걸쳐('05~'09) 매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09년에 OECD기준 가구균등화지수에 이르게 하기로

의결(1,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인상폭 상대적 증가).

<표 III-5> 연도별 가구균등화지수(보건복지부 고시·보도자료, 각 연도)

연 도	' 04	' 05	' 06	' 07	' 08	' 09	OECD
1인가구	0.349	0.3533	0.3574	0.3616	0.3658	0.3700	0.3700
2인가구	0.578	0.5883	0.5988	0.6092	0.6196	0.6300	0.6300
3인가구	0.795	0.7990	0.8030	0.8070	0.8110	0.8150	0.8150
4인가구	1.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인가구	1.137	1.1466	1.1562	1.1658	1.1754	1.1850	1.1850
6인가구	1.283	1.3005	1.3178	1.3352	1.3526	1.3700	1.3700

- 표준가구의 Market Basket 결정 및 최저생계비 산정
-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도출
- ② 계측조사 미 실시 연도에는 전년도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최저생계비 도출

<표 III-6> 연도별 가구규모별 월최저생계비(보건복지가족부 고시·보도자료, 각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인상 률
2003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3.0%
2004년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3.5%
2005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7.7%
2006년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3.0%
2007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3.0%

* 단위 : 원(won)

* 인상률 : 4인가구 기준

* 7인이상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5인가구)씩 증가

B. KYPs 자료에서 년도별 가구규모별 월평균 가구소득 산정

C. 절대빈곤A(욕구소득비) 변수의 생성(구인회, 2003)

: '욕구소득비(income to needs ratio) = 년도별 가구규모별 월평균 가구소득(KYPs자료) / 년도별 가구규모별 월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발표자료)'를 계산한 결과,

욕구소득비 $\leq 1 \rightarrow 1$

$1 < \text{욕구소득비} \leq 2 \rightarrow 2$

$2 < \text{욕구소득비} \leq 3 \rightarrow 3$

$3 < \text{욕구소득비} \leq 4 \rightarrow 4$

$4 < \text{욕구소득비} \leq 5 \rightarrow 5$

$5 < \text{욕구소득비} \leq 6 \rightarrow 6$

$6 < \text{욕구소득비} \rightarrow 7$

D. 절대빈곤B(절대적 빈곤 무유) 변수의 생성

: '년도별 가구규모별 월평균 가구소득(KYPs자료) / 년도별 가구규모별 월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발표자료)'를 계산한 결과,

년도별 가구규모별 월 최저생계비 초과 $\rightarrow 0$ (무)

년도별 가구규모별 월 최저생계비 이하 $\rightarrow 1$ (유)

(2) 상대빈곤 변수

상대빈곤변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이하를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으로 측정하기도 하고,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평균소득의 50%이하를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으로 측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주요국가들의 상대적 빈곤선의 설정기준을 살펴보면, OECD에서는 중위

소득의 40%, 50%, 60%를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 World Bank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1/3선을, 선진국의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1/2선을 상대빈곤선으로 측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50%를 상대빈곤선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50%를 상대빈곤선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평균소비지출의 68%를 상대빈곤선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 III-7> 주요기관 또는 국가들의 상대빈곤선(보건복지가족부, 고시·보도자료, 각 년도)

주요기관/국가	상대빈곤선 기준
OECD	중위소득의 40%, 50%, 60%
World Bank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
영국	평균소득의 50%
프랑스	중위소득의 50%
일본	평균소비지출의 68%

이 글에서 상대빈곤변수는 중위소득의 50%이하를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 무유로 나타낸 변수와 평균소득의 50%이하를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 무유로 측정한 변수의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 ① 상대빈곤A(중위) : 년도별 월평균 가구소득(KYPS자료) 중 년도별 월평균 가구소득의 중위소득의 50%이하(가계조사자료) 기준 상대적 빈곤 무유
: 년도별 개별가구의 조정 월평균 가구소득(KYPS자료) / 년도별 개별가구의 월평균 조정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의 50%이하(가계조사자료)

- 0(무) : 년도별 개별가구의 월평균 조정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의 50% 초과
- 1(유) : 년도별 개별가구의 월평균 조정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의 50% 이하

- ② 상대빈곤B(평균) : 년도별 월평균 가구소득(KYPS자료) 중 년도별 월평균 가구소득의 평균소득의 50%이하(가계조사자료) 기준 상대적 빈곤 무유
 : 년도별 개별가구의 조정 월평균 가구소득(KYPS자료) / 년도별 개별가구의 월평균 조정가처분소득의 평균소득의 50%이하(가계조사자료)

- 0(무) : 년도별 개별가구의 월평균 조정가처분소득의 평균소득의 50% 초과
- 1(유) : 년도별 개별가구의 월평균 조정가처분소득의 평균소득의 50% 이하

상대빈곤A(중위) 변수의 생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A. 가계조사자료(전가구 and 2인가구이상)에서, 년도별 월평균 가구소득의 중위소득의 50%이하 기준 상대적 빈곤선A(중위) 산정(류연규 · 최현수, 2003)

- ① 년도별 가구규모별 월평균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DI) 산정
 * 가처분소득(DI) = 경상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 (사회보장부담금(공적연금+사회보험)+소득세)
- ② 가구규모 및 가구원연령 등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차이조정을 위해, 가구균등화지수(OECD 기준, $\epsilon = 0.5$) 사용, 년도별 개별가구의 월평균 조정가처분소득(adjusted disposable income, ADI) 산정
 * 조정가처분소득(ADI) = DI/S^ϵ (S =가구원수, ϵ =가구균등화지수)
- ③ 산출된 년도별 개별가구의 월평균 조정가처분소득의 중앙값을 년도별 개별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의 중위소득으로 산출
- ④ 산출된 년도별 개별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의 중위소득의 50%이하 기준 상대적 빈곤선A(중위) 산출

B. KYPs자료 대상, 년도별 가구규모별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가구규모 및 가구원 연령 등에 따른 월평균 가구소득의 차이 조정을 위해, 가구 균등화지수(OECD 기준 $\epsilon=0.5$) 사용, 년도별 개별가구의 조정 월평균 가구소득 산정

$$\text{조정 월평균 가구소득} = \text{월평균 가구소득}/S^\epsilon \quad (S=\text{가구원수}, \epsilon=\text{가구 균등화지수})$$

C. 상대빈곤A(중위) 변수의 생성

: '년도별 개별가구의 조정 월평균 가구소득(KYPs자료) / 년도별 개별가구의 월평균 조정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의 50%이하(가계조사자료)'를 계산한 결과,

년도별 개별가구의 월평균 조정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의 50% 초과 → 0(무)

년도별 개별가구의 월평균 조정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유)

상대빈곤B(평균) 변수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생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A. 가계조사자료(전가구 and 2인가구이상)에서, 년도별 월평균 가구소득의 평균소득의 50%이하 기준 상대적 빈곤선B(평균) 산정

① 년도별 가구규모별 월평균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DI) 산정

$$\text{* 가처분소득(DI)} = \text{경상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 (\text{사회보장부담금(공적연금+사회보험)} + \text{소득세})$$

② 가구규모 및 가구원연령 등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차이조정을 위해, 가구균등화지수(OECD 기준, $\epsilon=0.5$) 사용, 년도별 개별가구의 월평균 조정가처분소득(adjusted disposable income, ADI) 산정

$$\text{* 조정가처분소득(ADI)} = \text{DI}/S^\epsilon \quad (S=\text{가구원수}, \epsilon=\text{가구균등화지수})$$

③ 산출된 년도별 개별가구의 월평균 조정가처분소득의 평균값을 년

도별 개별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의 평균소득으로 산출

- ④ 산출된 년도별 개별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의 평균소득의 50%이하 기준 상대적 빈곤선B(평균) 산출

B. KYPs자료 대상, 년도별 가구규모별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가구규모 및 가구원 연령 등에 따른 월평균 가구소득의 차이 조정을 위해, 가구 균등화지수(OECD 기준 $\epsilon=0.5$) 사용, 년도별 개별가구의 조정 월평균 가구소득 산정

조정 월평균 가구소득 = 월평균 가구소득/ S^ϵ (S =가구원수, ϵ =가구 균등화지수)

C. 상대빈곤B(평균) 변수의 생성

: '년도별 개별가구의 조정 월평균 가구소득(KYPs자료) / 년도별 개별가구의 월평균 조정가처분소득의 평균소득의 50%이하(가계조사자료)'를 계산한 결과,

년도별 개별가구의 월평균 조정가처분소득의 평균소득의 50% 초과 → 0(무)

년도별 개별가구의 월평균 조정가처분소득의 평균소득의 50% 이하 → 1(유)

(3) 주관적 빈곤 변수

주관적 빈곤 변수는 청소년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에 대한 변수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에서 '매우 그렇다(5)' 의 5점 척도로 측정한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 곤란을 겪는 중이다" 항목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참고 >

☞ 가구개념의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의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조 (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에서 "개별가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06.2.22>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을 제외한다)

2. 제1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중 30세 미만인 자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가구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6.2.22>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2. 외국에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3. 「행형법」 및 「치료감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등에 수용중인 자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5.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자

7. 기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 구청장이 확인한 자

☞ KYPS에서의 가구원수의 측정 → 아래 문1)~문6)의 합으로 산정

문1) 먼저, ○○○님(학생, 청소년)의 **현재 부모님**(현재 부모님과의 가족구성형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보기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 이혼한 경우에는 현재의 부모가 아님

※ 반드시 보기를 모두 읽어 줄 것 ()

- ①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가 계신다 ☞ **문2)로**
- ② 친아버지만 계신다 ☞ **문3)으로**
- ③ 친어머니만 계신다 ☞ **문3)으로**
- ④ 친아버지와 양어머니(계모)가 계신다 ☞ **문2)로**
- ⑤ 친어머니와 양아버지(계부)가 계신다 ☞ **문2)로**
- ⑥ 양아버지(계부)와 양어머니(계모)가 계신다 ☞ **문2)로**
- ⑦ 양아버지(계부)만 계신다 ☞ **문3)으로**
- ⑧ 양어머니(계모)만 계신다 ☞ **문3)으로**
- ⑨ 두분 모두 안 계신다(사망) → 그러면, 보호자께서는 ○○○님(학생, 청소년)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이십니까?
() ☞ **문3)으로**

문6) 이번에는 ○○○님(학생, 청소년)의 **가족**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6-1) ○○○님(학생, 청소년)의 **언니/누나/오빠/형**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단, 결혼해서 분가한 형제자매는 제외해주세요. (동거 여부 관계없음)

- ① 예 → ()명 ② 아니오

문6-2) 그럼, ○○○님(학생, 청소년)의 **동생**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동거 여부 관계없음)

- ① 예 → ()명 ② 아니오

문6-3) ○○님 **택**에 학생(청소년)의 **할아버지**께서 같이 살고 계십니까?

(친/외할아버지 구분 안함)

- ① 예
- ② 아니오

문6-4) ○○님 댁에 학생(청소년)의 **할머니**께서 같이 살고 계십니까?

(친/외할머니 구분 안함)

- ① 예
- ② 아니오

문6-5) ○○님 댁에 같이 살고 있는 ○○○님(학생, 청소년)의 **친척**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 ① 예 → (_____)명
- ② 아니오

☞ 소득개념의 정의

전체소득 =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 경조소득 +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 기타소득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사회보장부담금(공적연금+사회보험) + 소득세)

☞ KYPs에서의 년도별 가구규모별 월평균 가구소득의 측정

문7) ○○님 댁에서 최근 1년 동안 돈을 벌었던 경험이 있거나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모두 합쳐 몇 명입니까?

(학생(청소년) 아르바이트도 포함. 결혼 후 분가한 형제자매제외)

(_____)명

문8) ○○님 **댁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월평균 소득이란 ○○님 댁에서 돈을 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연금 등 1년간 모든 소득을 합해서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금액을 말합니다. (결혼 후 분가한 형제자매제외)

월평균(_____)만원

3) 건강부분 변수

빈곤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독립변수는 1단위로 구분된 욕구소득비와 청소년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이였다. 빈곤은 욕구소득비가 1 이하인 경우이며, 7개로 범주화된 욕구소득비는 가구소득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비선형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된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 곤란을 겪는 중이다” 항목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욕구소득비 변수를 객관적 빈곤 변수,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 변수를 주관적 빈곤변수로 보고 분석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인지와 흡연 및 음주경험으로 측정된 건강행태를 사용하였다. 스트레스는 5점 척도로 측정된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멋있는 옷을 입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의 17개 문항을 합산한 복합척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청소년의 스트레스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문항간 신뢰도는 .885이였다.

건강행태는 "담배 피우기"와 "술 마시기"에 대해서 지난 1년간 해 본 적이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건강행태 변수는 흡연만을 경험했는지, 음주만을 경험했는지, 둘 다 경험했는지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 밖에 청소년의 건

강과 관련된 요인으로 성별, 부모교육정도, 결혼가정 여부를 고려하였다.

종속변수인 건강관련 변수는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심리적·정신적 문제, 우울감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편이다”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문항에 대한 응답방향을 수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 스스로가 평가하는 건강이 좋다는 것을 뜻한다. 심리적·정신적 문제는 5점 척도로 측정한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울감은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의 4개 문항을 합산한 복합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간 신뢰도는 .869이었다.

4) 비행부분 변수

빈곤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비행은 음주, 흡연, 폭행, 절도 등 14가지 종류의 비행 경험정도를 심각도 정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화점수로 변환하여 합산하였다. 이러한 표준화 점수에는 마이너스 점수도 있을 수 있다. 이는 우리의 비행개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0-3점까지로 재척도화(rescaling)를 하여 현실세계와 일치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4가지 비행 중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청소년들은 0점이고 14가지 중 최대로 경험한 청소년은 3점을 얻게 되어 0점에서 3점 사이의 점수분포를 보이게 된다. 이의 문항간 신뢰도는 .71이다.

빈곤 여부는 가구별 소득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로 나눈 욕구소득비에

기초하여 욕구소득비가 1이하이면 빈곤한 것으로 조작화하였다. 즉, 가구원 수별로 계산된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빈곤가구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비 빈곤가구로 정의된다. 조사시작 시점인 2003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1인 355,774원, 2인 589,219원, 3인 810,431원, 4인 1,019,411원, 5인 1,159,070원, 6인 1,307,904원이었다(보건복지부, 2003).

개인요인으로는 성별, 자아존중감, 충동성, 공격성 변수를 사용하였다.

성별변수는 원자료에는 남자는 1, 여자는 2로 코딩되어 있었으나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여자는 0, 남자는 1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변수는 청소년패널에서는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중 6가지 문항을 추출하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고 있다. 사용된 문항은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등이며 뒤의 두 문항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것이므로 역점수화 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간 신뢰도는 .74로 나타났다.

충동성 변수는 "나는 화가 나면 물물을 가리지 않는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의 2문항으로 충동성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간 신뢰도는 문항수가 적어서 .46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가 없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등의 6개 문항으로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간 신뢰도는 .77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으로는 결혼가족 여부, 부모지도감독, 부모자녀애착, 부모의 학

대, 가족갈등 변수를 사용하였다.

가족의 구조적 형태를 측정하는 결손가족 여부는 청소년이 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를 0, 그렇지 않은 경우를 1로 처리하였다. 의붓부모가족(친부양모나 양부친모가족)의 경우에도 양쪽 부모가 모두 존재하면 0으로 처리하였다. 빈곤 여부와 결손가족 여부는 다른 변수들과 달리 부모에 대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이다.

부모지도감독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등의 4가지 문항(5점 척도)의 점수를 평균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청소년 생활에 대한 부모의 지도감독이 철저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의 신뢰도는 .85이다.

부모자녀애착은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등의 6가지 문항(5점 척도)의 점수를 평균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간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대는 이 척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난폭한 언행을 측정하기 위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의 2문항(5점 척도)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통상적인 의미의 학대라기보다 가혹한 훈육에 가까운 것이다. 학대도 연속선상에 위치해 있는 것이므로 가혹한 훈육이 정도를 넘어 최고 점수를 얻는다면 학대로 간주할 수 있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대에 근접한 것을 의미하며 이의 신뢰도는 .76이다.

가족갈등은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와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등의 2문항(5점 척도)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족내 갈등이 심각한 것을 의미하며 이의 문항간 신뢰도는 .75이다.

또래집단 및 학교요인으로는 비행또래집단, 학교애착, 학교몰입, 학업성취 변수를 사용하였다.

비행또래집단 척도는 근신·정학·퇴학, 흡연, 음주, 무단결석, 폭행, 갈취, 절도 등의 8가지 비행을 경험한 친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가 주위에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 변수는 매우 친한 친구들 중에 몇 명 정도가 8개의 비행과 관련되는지를 각 비행별로 '매우 친한 친구들의 수'에 대한 비율로 변환하여 0(한명도 없음)과 1(모두 관련됨)사이의 점수로 계산한 뒤 이를 모두 합산하여 도출하였다. 이의 신뢰도는 .82이다.

학교애착은 학교 공부에 흥미가 있는지, 학교 숙제를 잘 하는지,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지 등의 5개 항목을 평균하여 측정되었으며 각각에 대해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교에 대한 애착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의 문항간 신뢰도는 .61이다.

학교몰입은 "학교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 상급학교 진학이 필수적이다",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상급학교 진학이 필수적이다" 등의 3개 문항으로 학교몰입(school commitment)을 측정하였다. 각각에 대해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교몰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의 문항간 신뢰도는 .63이다.

학업성취는 청소년 자신이 보고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영역에서의 반 성적을 평균하여 산출한 것으로 객관적인 성적이라기보다 주관적으로 인지된 학업성취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이의 신뢰도는 .79이다.

지역사회요인으로는 지역사회 지도감독변수를 사용하였다.

지역사회 지도감독 변수는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나

를 몹시 비난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주위 사람들로부
터 창피함을 당할 것이다"의 2개 문항으로 지역사회 지도감독을 측정하였
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역사회 지도감독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의 신
뢰도는 .84이다.

5) 노동시장참여부분 변수

빈곤이 청소년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독
립변수는 절대적 빈곤변수 2개, 상대적 빈곤변수 2개이다. 절대적 빈곤변수
는 절대빈곤A와 절대빈곤B로 나뉘는데, 절대빈곤A는 연도별 가구규모별
월평균 가구소득을 연도별 가구규모별 월최저생계비로 나눈 값으로 1부터
7까지의 값을 갖는다. 절대빈곤B는 연도별 가구규모별 월 최저생계비를 기
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면 0, 초과하지 않으면 1의 값을 갖는다.

상대적 빈곤변수는 상대빈곤A와 상대빈곤B로 나뉘는데, 상대빈곤A는 연
도별 개별가구의 월평균 조정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
여, 이를 초과하면 0, 초과하지 않으면 1의 값을 갖는다. 상대빈곤B는 연도
별 개별가구의 월평균 조정가처분소득의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면 0, 초과하지 않으면 1의 값을 갖는다.

절대빈곤A는 가구소득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단위로 환산한 것이므
로 엄격히 보면 빈곤을 나타내는 변수라기보다는 월 최저생계비 단위로 소
득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절대빈곤B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
비를 기준으로 빈곤여부를 정하였고, 상대빈곤A는 가구 중위소득의 50%,
상대빈곤B는 가구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빈곤층을 설
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높은 소득기준을 적용한 변수는 상대빈곤B이고, 그
다음은 상대빈곤A이며, 가장 낮은 소득기준을 적용한 변수는 절대빈곤B이
다.

분석에서 사용할 종속변수는 노동시장참여여부, 주당근로시간, 노동지속
기간이다. 노동시장참여여부는 지난 1년간 노동시장참여경험에 대한 질문에
서 참여를 하였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주당노동시간은 가

장 최근 노동의 ‘1주일간 노동일’ 과 ‘일일노동시간’ 을 곱하여 만들어진 변수이며, 노동지속기간은 가장 최근 노동의 - 노동을 시작한 뒤부터 끝날 때까지의 - 일수로 계산되었다. 노동시장참여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회귀분석에서는 중다로지스틱회귀분석(multi-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고, 주당노동시간과 노동지속기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에서는 중다선형회귀분석(multi-linear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기존 국내외연구에서 효과가 검증된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남자 1, 여자 0), 계열(일반고 1, 전문고 2), 부의 학력(무학 0 ~ 대학원박사 8), 지역(광역시 1, 그 외 지역 0), 이전년도 학생성적(반석차 비율 - 낮을수록 성적 우수함), 이전년도 휴대폰 비용이 사용되었다. 학생성적과 휴대폰 비용은 이전년도의 측정값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종속변수인 노동시장참여가 지난 1년간의 경험을 측정하는데 반해 학생성적은 지난 1학기의 상태를, 휴대폰 비용은 조사시점에서의 상태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6) 학업성취부분 변수

빈곤이 청소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독립변수는 절대적 빈곤 무유(유=1)변수, 절대빈곤(육구소득비더미; $1 < \text{육구소득비} \leq 2$ 기준)변수, 상대빈곤(중위소득기준)더미(유=1)변수, 상대빈곤(평균소득기준)더미(유=1)변수, 주관적 빈곤변수의 5개의 빈곤변수와 성별(남자더미)변수, 부교육연수 변수, 모교육연수변수 이다. 주관적 빈곤변수는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 곤란을 겪는 중이다”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는 학업성적변수와 희망교육수준의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하였는데, 학업성적변수는 지난학기 반 성적중 국, 영, 수, 사, 과의 5개 과목 각각에 대해 (1) 매우 못하는 수준, (2) 못하는 수준, (3) 중간, (4) 잘하는 수준, (5) 매우 잘하는 수준의 5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합산하여 사용하였으며, 희망교육수준은 “귀하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를 묻은

다음, (1) 중졸, (2) 고졸, (3) 초대졸, (4) 대졸, (5) 대학원졸로 측정하였으며, 실제 분석시에는 이들을 모두 졸업연수로 환산하여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2. 빈곤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은 고2 시기의 건강관련 변수(주관적 건강상태, 심리적·정신적 문제, 우울감)에 대해 각각 실시되었으며, 각각의 분석에서 욕구소득비(객관적 빈곤변수),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주관적 빈곤변수), 결손가정 여부, 스트레스, 건강행태는 전년도 측정값을 사용하였다.

우선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별, 부모교육정도, 결손가정 여부 등의 변수만을 통제한 상태에서 범주화된 욕구소득비 변수와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 변수를 순차적으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인지와 건강행태가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성별, 부모교육정도, 결손가정 여부 변수를 통제하고 스트레스 인지와 건강행태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빈곤의 영향을 보다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 스트레스 인지와 건강행태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욕구소득비 변수와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 변수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표 III-8>, <표 III-9>, <표 III-10>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심리적·정신적 문제, 우울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 5개 모형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 1과 모형 2는 스트레스 인지와 건강행태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모형 3에서는 빈곤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스 인지와 건강행태 변수가 각각 주관적 건강상태와 심리적·정신적 문제, 우울감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모형 4와 모형 5는 객관적 빈곤 변수와 주관적 빈곤 변수를 차례로 스트레스 인지, 건강행태 변수와 함께 모형에 투입하여 빈곤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성별, 부모교육정도, 결손가정 여부가 분석 모형에 포함되었다.

1) 빈곤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표 III-8>의 모형 1은 빈곤이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욕구소득비 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욕구소득비는 각 급간을 나타내는 6개의 더미변수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참조집단은 욕구소득비 1 초과 2 이하의 집단이다. 추정 결과, 욕구소득비가 1 이하인 빈곤층에서만 청소년 자신이 평가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참조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욕구소득비가 2 초과인 모든 계층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참조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모형 2는 청소년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 변수와 주관적 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을 추정한 결과이다. 추정 결과, 청소년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 변수와 주관적 건강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즉, 청소년 본인이 집안 경제사정이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스스로가 평가하는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추정 결과, 스트레스 인지와 건강행태는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빠졌다. 건강행태에 대해서는 흡연경험, 음주경험 각각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흡연과 음주를 둘 다 경험한 집단은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기평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와 모형 5에서는 성별, 부모교육정도, 결손가정 여부 외에 청소년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스트레스 인지와 건강행태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객관적 빈곤 변수인 욕구소득비와 주관적 빈곤 변수인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스트레스 인지와 건강행태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도 욕구소득비 1 이하의 집단에서는 참조집단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주관적 빈곤 변수의 영향도 스트레스 인지와 건강행태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도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모형 4와 모형 5의 추정결과를 보면, 빈곤의 영향은 스트레

스 인지와 건강행태를 통제한 이후에도 계속됨을 알 수 있다. 객관적 빈곤 변수와 주관적 빈곤 변수 모두 스트레스 인지, 건강행태를 통제하기 전과 후에 그 영향 정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

<표 III-8> 빈곤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객관적 빈곤 변수					
욕구소득비≤1	-.046 [*]			-.042 [*]	
2<욕구소득비≤3	-.005			-.003	
3<욕구소득비≤4	.024			.027	
4<욕구소득비≤5	.017			.020	
5<욕구소득비≤6	.004			.004	
6<욕구소득비	-.015			-.012	
(1<욕구소득비≤2기준)					
주관적 빈곤 변수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		-.226 ^{***}			-.203 ^{***}
스트레스 인지			-.129 ^{***}	-.124 ^{***}	-.090 ^{***}
건강행태					
흡연경험			-.024	-.020	-.019
음주경험			.033	.034	.035
음주, 흡연 둘다 경험			-.049 [*]	-.051 ^{**}	-.038 [*]
(음주, 흡연 경험없음 기준)					
성별(남자 기준)	-.074 ^{***}	-.073 ^{***}	-.068 ^{***}	-.070 ^{***}	-.071 ^{***}
부모교육	-.026	-.038	-.026	-.032	-.040
모교육	.001	-.017	.016	.005	-.010
결손가정(양부모 기준)	-.046 [*]	-.017	-.057 ^{**}	-.053 ^{**}	-.024
Adj R ²	.008 ^{***}	.054 ^{***}	.027 ^{***}	.028 ^{**}	.064 ^{**}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성별과 부모교육정도는 빈곤 변수와 스트레스 인지, 건강행태 변수의 투

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모형에서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본인의 건강상태를 좋지 않게 평가하였으며, 부모교육정도는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결손가정 변수는 모형 1, 모형 3, 모형 4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고, 모형 2와 모형 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즉 결손가정 청소년은 양부모가정 청소년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주관적 빈곤 변수로 통제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III-8>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볼 때, 청소년이 객관적으로 빈곤하거나 주관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느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스트레스 인지, 건강행태, 성별, 부모교육정도, 결손가정 여부를 통제한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2) 빈곤이 심리적·정신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

<표 III-9>는 빈곤이 청소년의 심리적·정신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모형 1은 빈곤이 청소년의 심리적·정신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욕구소득비 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욕구소득비 1 이하의 빈곤층은 참조집단에 비해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더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욕구소득비가 2 초과인 모든 계층의 심리적·정신적 문제는 참조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모형 2는 청소년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 변수와 청소년의 심리적·정신적 문제와의 관련성을 추정한 결과이다. 추정 결과, 청소년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 변수와 심리적·정신적 문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즉, 청소년 본인이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 곤란을 겪고 있다고 느낄수록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더 겪고 있었다.

모형 3의 추정 결과, 스트레스 인지는 청소년의 심리적·정신적 문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행태가 청

소년의 심리적·정신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흡연이나 음주를 경험한 청소년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주관적 건강상태에서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형 4와 모형 5에서는 성별, 부모교육정도, 결손가정 여부 외에 스트레스 인지와 건강행태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객관적 빈곤 변수인 욕구소득비와 주관적 빈곤 변수인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스트레스 인지와 건강행태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욕구소득비 1 이하의 집단에서는 참조집단에 비해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더 겪고 있었다. 주관적 빈곤 변수의 영향도 스트레스 인지와 건강행태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모형 4와 모형 5의 추정결과를 보면, 빈곤의 영향은 스트레스 인지와 건강행태를 통제한 이후에도 계속됨을 알 수 있다. 객관적 빈곤 변수와 주관적 빈곤 변수 모두 스트레스 인지, 건강행태를 통제하기 전과 후에 그 영향 정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

성별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모형 1, 모형 2, 모형 4, 모형 5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더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정도는 청소년의 심리적·정신적 문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결손가정 변수는 모형 3에서 심리적·정신적 문제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즉 결손가정 청소년은 양부모가정 청소년에 비해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더 겪고 있었으나, 객관적 또는 주관적 빈곤 변수로 통제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III-9>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볼 때, 주관적 건강상태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객관적으로 빈곤하거나 주관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느낄수록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더 호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스트레스 인지, 건강행태, 성별, 부모교육정도, 결손가정 여부를 통제한 후에도 지속되었다.

<표 III-9> 빈곤이 심리적·정신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객관적 빈곤 변수					
욕구소득비 ≤ 1	.050*			.045*	
2 < 욕구소득비 ≤ 3	.022			.019	
3 < 욕구소득비 ≤ 4	.004			.002	
4 < 욕구소득비 ≤ 5	.030			.026	
5 < 욕구소득비 ≤ 6	-.010			-.010	
6 < 욕구소득비	.014			.012	
(1 < 욕구소득비 ≤ 2 기준)					
주관적 빈곤 변수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		.246***			.212***
스트레스 인지			.186***	.180***	.143***
건강행태					
흡연경험			.025	.026	.017
음주경험			-.010	-.008	-.009
음주, 흡연 둘다 경험			.029	.035	.019
(음주, 흡연 경험없음 기준)					
성별(남자 기준)	.052**	.052**	.036	.039*	.040*
부교육	.020	.045	.029	.025	.046
모교육	.015	.041	.005	.010	.033
결손가정(양부모 기준)	.026	-.004	.039*	.038	.009
Adj R ²	.004*	.059***	.038***	.037***	.078***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3) 빈곤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표 III-10>은 빈곤이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객관적 빈곤변수의 영향을 추정한 모형 1을 살펴보면, 욕구소득비 1 이하의 빈곤집단은 참조집단에 비해 우울감을 더 많이 겪고 있었다. 그러나 욕구소득비가 2 초과인 모든 계층의 우울감은 참조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관적 빈곤변수의 영향을 추정한 모형 2에서는 청소년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 변수와 우울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즉, 청소년 본인이 집안 경제사정이 나쁘다고 느낄수록 우울감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추정 결과, 스트레스 인지와 건강행태는 청소년의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우울감을 더 경험하고 있었으며 흡연과 음주를 둘 다 경험한 집단은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감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와 모형 5에서는 성별, 부모교육정도, 결손가정 여부 외에 스트레스 인지와 건강행태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객관적 빈곤 변수인 욕구소득비와 주관적 빈곤 변수인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스트레스 인지와 건강행태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욕구소득비 1 이하의 집단에서는 참조집단에 비해 우울감을 더 겪고 있었다. 주관적 빈곤 변수의 영향도 스트레스 인지와 건강행태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모형 4와 모형 5의 추정결과를 보면, 빈곤의 영향은 스트레스 인지와 건강행태를 통제한 이후에도 계속됨을 알 수 있다.

성별과 부모교육정도, 결손가정 여부는 빈곤 변수와 스트레스 인지, 건강행태 변수의 투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모형에서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감을 더 많이 겪고 있었으며, 부모교육정도, 결손가정 여부는 청소년의 우울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표 III-10>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볼 때, 청소년이 객관적으로 빈곤하거나 주관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느낄수록 우울감을 더 많이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영향은 스트레스 인지, 건강행태, 성별, 부모교육정도, 결손가정 여부를 통제한 후에도 지속되었다.

<표 III-10> 빈곤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객관적 빈곤 변수					
욕구소득비 ≤ 1	.055**			.046*	
2 < 욕구소득비 ≤ 3	-.001			-.006	
3 < 욕구소득비 ≤ 4	-.015			-.018	
4 < 욕구소득비 ≤ 5	.011			.006	
5 < 욕구소득비 ≤ 6	.004			.004	
6 < 욕구소득비	.004			.000	
(1 < 욕구소득비 ≤ 2 기준)					
주관적 빈곤 변수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		.161***			.094***
스트레스 인지			.301***	.299***	.277***
건강행태					
흡연경험			.014	.024	.014
음주경험			.017	.016	.019
음주, 흡연 둘다 경험			.065***	.074***	.062**
(음주, 흡연 경험없음 기준)					
성별(남자 기준)	.189***	.188***	.161***	.165***	.165***
부교육	-.019	-.002	-.011	-.011	-.002
모교육	.020	.033	.009	.014	.020
결손가정(양부모 기준)	-.002	-.010	.024	.016	.013
Adj R ²	.036***	.057***	.130***	.134***	.136***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3. 빈곤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빈곤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과 결합발달궤적모형을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의 주류를 이루는 관찰변수중심적(variable-centered) 접근에서는 모든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평균 발달궤적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지만, 관찰대상중심적(person-centered) 접근은 청소년집단 내 질적으로 차별화된 다양한 발달궤적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둔다. 관찰변수중심적 접근이 청소년발달의 일반적인 경향을 밝히는 데는 유용하지만 집단 내에서 다양한 질적 차이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관찰대상중심적 접근에서는 동일집단 내 질적인 차별성을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집단 내의 상이한 발달유형을 밝히는데 용이하다(Chung et al., 2001).

본 연구는 관찰대상중심적 접근 중 하나인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ing)을 사용하여 비행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을 도출하려고 한다.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은 Nagin이 개발한 통계기법으로 종단적 장기자료를 바탕으로 상이한 발달유형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통계기법이다(Nagin, 1999, 2005; Nagin & Land, 1993; Chung et al., 2002). 이는 개념적으로 종단적 자료를 이용한 군집분석과 유사하지만 횡단적 자료를 이용한 군집분석처럼 한 시기에 비슷한 특질을 가진 사람들을 묶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비슷한 발달경로를 따르는 사람들을 묶어내는 분석기법이다.

결합발달궤적 모형(joint trajectory model)은 관심있는 두 개의 장기자료를 1개의 요약적인 통계모형으로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Nagin (1999)의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을 다양한 차원으로 일반화한 모형으로 Nagin과 Tremblay (2001)의 논문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전통적 접근에서는 각각의 시점 간의 일대일 관계를 살펴보는 반면 결합발달궤적 모형 접근에서는 전체 관찰기간 내의 두 개의 관심변수의 장기적 변화를 연결시켜 설명한 모형이다. 이는 관찰기간내 모든 자료를 완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두 관심변수의 장기적 연결관계의 강도와 형태에

있어 집단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최적의 결합모형을 찾을 때에는 각각의 모형에서 최적 모형으로 선정된 것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Nagin & Tremblay, 2001).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발달궤적과 비행의 발달궤적을 결합하는 모형을 구성하려고 한다.

1) 비행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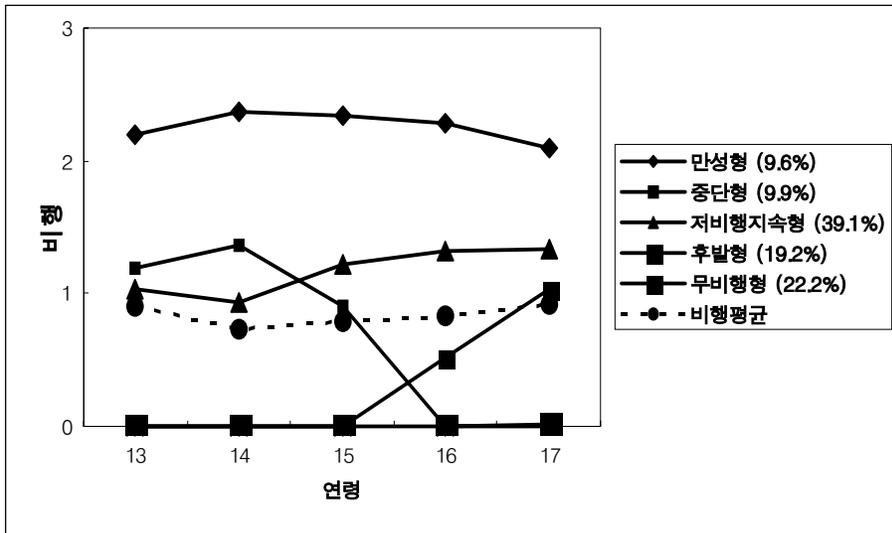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의 절차에 따라 비행의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6집단 모형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 III-4>에 요약되어 있다. 각 집단 간의 비교는 모형들이 서로 내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를 사용하였고, 이 중 절대값이 가장 낮은 5집단 모형을 최적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모형은 주관적인 분류기준에 의해서 진행되는 비행집단의 유형화와는 매우 상이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각 년도의 비행여부를 가지고 진행되는 주관적인 분류는 5개 년도로 하면 32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이에는 실제 있지 않은 유형을 중요한 유형인 것처럼 간주하는 과대추정의 위험과 실제로 존재하는 유형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소추정의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Chung, Nagin, Hawkins, & Hill, 2001). 하지만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은 통계적인 절차를 통해 유형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이 낮다.

<표 III-11>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을 통한 비행발달궤적의 모형적합도와 집단분포

모형	BIC	발달궤적 집단분포					
		1 st	2 nd	3 rd	4 th	5 th	6 th
1집단	-22094.02	100.0%	-	-	-	-	-
2집단	-20825.57	53.2%	46.7%	-	-	-	-
3집단	-20695.41	51.0%	25.6%	23.4%	-	-	-
4집단	-20587.05	41.7%	24.6%	18.1%	15.6%	-	-
5집단	-20438.56	39.1%	22.2%	19.2%	9.9%	9.6%	-
6집단	-20480.92	36.0%	22.3%	13.6%	11.3%	8.7%	8.1%

주) 진하게 표시된 모형이 최적모형

비행의 5집단 모형은 <그림 III-1>과 같다. 먼저 비행 발달궤적에서 무비행형 집단은 전체 청소년의 22.2%가 속하며, 전혀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집단이다. 둘째, 비행 발달궤적에서 후발형 집단은 전체 청소년의 19.2%가 속하며, 15세까지는 무비행형처럼 비행을 저지르지 않다가 16세부터 늦게 비행을 저지르는 집단이다. 셋째, 저비행지속형은 청소년의 39.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13세부터 17세까지 일관되게 낮은 수준의 비행을 저지르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비행의 평균발달곡선과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넷째, 중단형 집단은 전체 청소년의 9.9%가 속하며, 후발형과 반대로 13-15세에는 비행을 저지르다가 16세부터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만성형 집단은 13-17세 관찰기간 동안 내내 높은 수준의 비행을 꾸준히 저지르는 집단이다.



<그림 III-1> 비행 발달궤적의 5집단 모형

비행발달궤적과 빈곤여부, 성별, 결혼가족 여부 등과 관련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12>와 같다. 빈곤청소년인 경우 무비행형 비행궤적을 따르는 경우가 더 많고 빈곤청소년인 경우 만성형 비행궤적을 따르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무비행형, 중단형이 많았고 남자청소년인 경우 후발형, 저수준비행지속형, 만성형이 많았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손가족 여부에 따라서 살펴본 결과, 일반가족 청소년의 경우 무비행형 집단이 많았지만 결손가족 청소년의 경우 두드러지게 만성형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비행발달궤적 집단의 빈곤여부, 성별, 결손가족 유무 관련 기술통계

	저수준				
	무비행형 (n=984)	후발형 (n=576)	비행지속형 (n=1,207)	중단형 (n=395)	만성형 (n=287)
빈곤여부(중2 시기)					
비빈곤 (n=2,860)	27.0%	17.0%	36.2%	11.5%	8.3%
빈곤 (n=279)	23.3%	16.1%	38.4%	11.5%	10.8%
성별 ***					
여성 (n=1,724)	32.3%	14.9%	32.0%	13.5%	7.3%
남성 (n=1,725)	24.8%	18.5%	38.0%	9.4%	9.4%
결손가족 여부 *					
일반가족 (n=3,120)	29.0%	16.9%	34.9%	11.4%	7.8%
결손가족 (n=109)	27.5%	18.3%	31.2%	7.3%	15.6%

*p <.05, ***p <.001

2) 비행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

이제 다음 단계로서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을 통해 얻어진 5개의 비행 발달궤적 집단이 서로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에서 얻어진 5개의 집단이 종속변수가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항 로짓분석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III-13>에서 <표 III-16>까지와 같다. 먼저 빈곤이 5개 비행 발달궤적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빈곤은 무비행집단에 비해 만성형 비행집단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2시기의 빈곤이 비행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궤적을 하나의 시기만을 가지고 예측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추정된다.

다음은 빈곤변수이외에 개인요인에서 지역사회요인에 이르는 생태체계적 요인이 비행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무비행형과 비교하여 후발형 비행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변수들은 소수로 나타났고, 성별, 학교에착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일수록, 학교에착이 낮을수록 무비행형 집단에 비교해서 후발형 집단에 소속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비행형에 비교하여 저수준비행지속형이 될 확률을 높이는 변수들은 성별, 충동성, 공격성, 가족갈등, 비행또래집단으로 나타났고, 무비행형 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것은 부모지도감독, 학교에착, 학업성취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청소년일수록, 충동성과 공격성이 높으며 가족갈등이 있으며 비행또래집단과 어울릴 경우 무비행집단에 비교하여 저수준 비행지속형 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부모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있을수록, 또한 학교에착이 높고 학업성취도 높을수록 저수준 비행지속형 집단에 비교하여 무비행 집단에 소속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비행집단에 비교하여 비행중단형 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변수들은 자아존중감, 충동성, 공격성, 비행또래집단으로 나타났고, 비행중단형 집단이 될 확률을 낮추는 변수는 학교에착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무비행 집단에 비교하여 만성형 비행집단에 소속될 확률을 높이는 변수들은 가장 많은 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 충동성, 공격성, 결손가족 여부, 가족갈등, 비행또래집단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성형 비행집단이 될 확률을 낮추는 변수들은 부모지도감독, 학교에착, 학업성취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청소년이면서 충동성과 공격성이 높고 결손가족이면서 가족갈등도 높고 비행또래집단과 어울릴 경우 무비행집단에 비해 만성형 비행집단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지도감독이 적절하고 학교에착이 높으며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만성형 비행집단에 비교하

여 무비행형 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격성, 충동성, 비행또래집단, 학교애착의 경우, 무비행형과 후발형의 비교 이외의 모든 분석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성과 충동성이 높고 학교애착이 낮으며 비행또래집단과 어울릴 경우 무비행형에 비교하여 저수준비행 지속형, 중단형, 만성형 비행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13> 다항로지분석을 통한 비행 발달계적 유형에 대한 빈곤의 영향 (전체집단)

	무비행형 대 후발형		무비행형 대 저수준 지속형		무비행형 대 중단형		무비행형 대 만성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중2(2003) 예측요인								
절편	-.463	.058	.293	.048	-.853	.066	-1.177	.074
절대빈곤(빈곤=1)	.095	.202	.205	.164	.144	.226	.404+	.233

+p <.10

<표 III-14> 다항로지분석을 통한 비행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전체집단)

	무비행형 대 후발형		무비행형 대 저수준 지속형		무비행형 대 중단형		무비행형 대 만성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중2(2003) 예측요인								
절편	-.528	.564	.473	.476	-1.087	.650	-1.376	.762
빈곤								
절대빈곤(빈곤=1)	-.025	.237	-.060	.200	-.177	.286	.021	.301
개인요인								
성별(남자=1)	.483***	.119	.431***	.101	-.088	.138	.756***	.167
자아존중감	.093	.113	.126	.095	.249+	.127	.039	.147
충동성	.008	.076	.310***	.064	.251**	.087	.428***	.104
공격성	.146	.099	.213*	.084	.213*	.114	.676***	.136
가족요인								
결손가족(결손=1)	.295	.332	.087	.298	-.270	.450	.843*	.380
부모지도감독	-.075	.082	-.182**	.069	-.076	.093	-.426***	.107
부모자녀애착	.018	.095	.004	.080	.014	.108	.077	.124
부모의 학대	-.038	.197	-.014	.070	-.082	.097	.037	.102
가족갈등	.063	.631	.110+	.065	.057	.089	.212*	.095
또래집단 및 학교요인								
비행또래집단	-1.847	1.223	2.543***	.779	2.957***	.913	5.521***	.859
학교애착	-.189+	.105	-.442***	.089	-.512***	.119	-.597***	.142
학교몰입	.002	.001	-.058	.061	-.099	.082	-.053	.093
학업성취	-.054	.331	-.156*	.079	.015	.107	-.506***	.127
지역사회요인								
지역사회 지도감독	.007	.015	.045	.047	-.005	.065	.098	.078

+p <.10, *p <.05, **p <.01, ***p <.001

본 연구는 빈곤이 비행 발달궤적에 영향주는 정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비빈곤집단을 살펴본 결과 비빈곤집단이 전체집단의 82.9%를 차지하기 때문인지 그 결과는 전체집단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III-15> 다항로지분석을 통한 비행 발달계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비빈곤집단)

	무비행형 대 후발형		무비행형 대 저수준 지속형		무비행형 대 중단형		무비행형 대 만성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중2(2003) 예측요인								
절편	-.395	.586	.683	.495	-.971	.674	-1.288	.796
개인요인								
성별(남자=1)	.486***	.123	.436***	.105	-.082	.143	.805***	.175
자아존중감	.071	.117	.122	.098	.220+	.132	.086	.153
충동성	.054	.079	.303***	.067	.244**	.090	.418***	.108
공격성	.100	.102	.197*	.087	.281*	.117	.669***	.141
가족요인								
결손가족(결손=1)	.316	.374	.009	.345	-.169	.491	.913*	.433
부모지도감독	-.097	.085	-.185**	.071	-.069	.096	-.421***	.112
부모자녀애착	.060	.099	.002	.083	-.012	.111	.075	.129
부모의 학대	-.043	.089	.007	.073	-.083	.101	.046	.107
가족갈등	.057	.082	.101	.068	.015	.093	.200*	.100
또래집단 및 학교요인								
비행또래집단	-1.513	1.248	2.746***	.814	3.217***	.943	5.489***	.900
학교애착	-.235*	.107	-.489***	.091	-.537***	.122	-.652***	.147
학교몰입	.011	.075	-.045	.063	-.048	.085	-.001	.098
학업성취	-.072	.097	-.184*	.082	-.003	.111	-.588***	.133
지역사회요인								
지역사회 지도감독	.026	.057	.059	.049	.026	.067	.106	.081

+p <.10, *p <.05, **p <.01, ***p <.001

반면 빈곤집단의 경우 전체집단의 8.1%를 차지하는데 그 결과는 전체집단의 결과가 많이 상이하였다. 요약하면 빈곤집단의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많이 찾아보기 어려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격성이 높을수록 무비행형에 비교하여 후발형이 될 확률이 높았다. 무비행형에 비교하여 저수준지속형 비행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변수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수 중에서는 없었다. 무비행형에 비교하여 중단형이 될 확률을 낮추는 변수는

학교몰입과 지역사회 지도감독이었다. 청소년이 학교몰입 정도가 높고 지역사회 지도감독이 철저할수록 중단형에 비교하여 무비행형 집단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무비행형 집단에 비교하여 만성형 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변수들은 공격성, 충동성, 비행또래집단으로 나타났다. 만성형 집단이 될 확률을 낮추는 변수는 학교몰입으로 나타났다. 공격성과 충동성이 높고 비행또래집단과 어울릴수록 무비행형 집단에 비교하여 만성형 비행집단이 될 확률이 높았고, 반면 학교몰입의 정도가 높을수록 만성형 비행집단에 비교하여 무비행형 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다항로지분석을 통한 비행 발달계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빈곤집단)

	무비행형 대 후발형		무비행형 대 저수준 지속형		무비행형 대 중단형		무비행형 대 만성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중2(2003) 예측요인								
절편	-2.291	2.262	-2.585	1.811	-2.871	2.699	-4.364	2.921
개인요인								
성별(남자=1)	.469	.505	.328	.411	-.451	.623	.295	.670
자아존중감	.457	.499	.320	.384	.575	.549	-.552	.628
충동성	-.754	.376	.440	.285	.606	.433	1.025*	.429
공격성	.993*	.459	.570	.366	.281	.543	.957+	.576
가족요인								
결손가족(결손=1)	-.152	.784	.321	.625	-.614	1.213	.276	.952
부모지도감독	.226	.333	-.091	.271	-.336	.398	-.546	.425
부모자녀애착	-.674	.428	-.065	.345	.391	.538	-.319	.503
부모의 학대	-.095	.364	-.380	.300	-.034	.426	.095	.365
가족갈등	.083	.303	.101	.248	.591	.352	.305	.347
또래집단 및 학교요인								
비행또래집단	-6.747	7.260	-1.424	3.459	-.224	5.200	10.885*	3.868
학교애착	.740	.572	.376	.461	-.030	.683	.669	.691
학교몰입	-.128	.298	-.294	.237	-.809*	.357	-1.009*	.403
학업성취	.096	.406	.178	.336	.142	.539	.835	.569
지역사회요인								
지역사회 지도감독	-.368	.241	-.191	.193	-.563+	.318	-.162	.335

+p <.10, *p <.05, **p <.01, ***p <.001

3) 빈곤 발달계적과 비행 발달계적 간의 관계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빈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이유 중의 하나는 비행 발달계적의 경우 장기적으로 살펴본 반면 빈곤은 중2 시기 한 시점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빈곤도 장기적인 발달계적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비행발달계적

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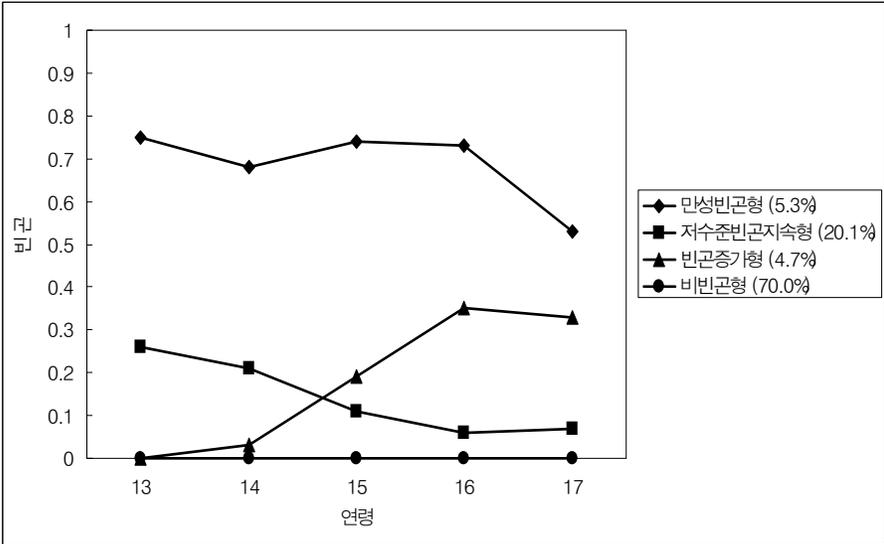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의 절차에 따라 빈곤의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모형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 III-17>에 요약되어 있다. 빈곤의 경우,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의 절대값이 가장 낮은 4집단 모형을 최적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III-17>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을 통한 빈곤발달체적의 모형적합도와 집단분포

모형	BIC	발달체적 집단분포				
		1 st	2 nd	3 rd	4 th	5 th
1집단	-3845.37	100.0%	-	-	-	-
2집단	-3243.04	90.4%	9.6%	-	-	-
3집단	-3256.95	70.5%	24.2%	5.3%	-	-
4집단	-3274.62	70.0%	20.1%	5.3%	4.7%	-
5집단	-3294.40	71.1%	10.7%	9.6%	5.0%	3.5%

주) 진하게 표시된 모형이 최적모형

빈곤의 4집단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먼저 빈곤 발달체적에서 비빈곤형 집단은 전체 청소년의 70.0%가 속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이며, 관찰기간 동안 전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다. 둘째, 빈곤증가형 집단은 전체 청소년의 4.7%가 속하며, 13세에는 빈곤하지 않았으나 점점 빈곤의 정도가 높아지는 집단이다. 셋째, 저수준빈곤지속형은 청소년의 20.1%를 차지하며 이 집단은 13세부터 17세까지 일관되게 낮은 수준의 빈곤을 경험하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만성빈곤형 집단은 13-17세 관찰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빈곤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전체 청소년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빈곤 발달체적의 4집단 모형

빈곤 발달체적과 성별, 결혼가족 여부 등과 관련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18>과 같다. 빈곤 발달체적과 성별은 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혼가족 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일반가족 청소년의 경우 비빈곤형 집단이 많았지만 결혼가족 청소년의 경우 두드러지게 저수준 빈곤지속형과 만성빈곤형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가족이 빈곤에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빈곤 발달레적 집단의 성별, 결혼가족 유무 관련 기술통계

	비빈곤형 (n=2,705)	빈곤증가형 (n=116)	저수준	
			빈곤지속형 (n=330)	만성빈곤형 (n=162)
성별				
여성 (n=1,644)	80.9%	3.8%	9.5%	5.7%
남성 (n=1,669)	82.4%	3.2%	10.4%	4.1%
결혼가족 여부 ***				
일반가족 (n=3,005)	85.3%	3.3%	8.7%	2.7%
결혼가족 (n=102)	62.7%	2.0%	22.5%	12.7%

***p <.001

그 다음 단계에서는 결합식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joint 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ing)을 사용하였다. 이는 빈곤 발달레적과 비행 발달레적을 동시 추정하여 두 개의 발달레적간의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ies)을 구하고 이러한 전환에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합 모형은 각각에서 최적모형으로 결정되었던 빈곤의 4집단 모형과 비행의 5집단 모형에 기반한 것이다.

<표 III-19>는 빈곤 발달레적에 조건화된 비행 발달레적의 전이확률을 요약한 것이다. <표 III-19>는 두 개의 발달레적을 각각 구하고 이를 분류하여 정리한 두 개 집단의 교차분석표처럼 보이지만 이와는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사후 분석분류 방식은 2단계로 분리되어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관되고 효율적인 추정치를 구하기가 어렵다. 반면 결합 모형의 경우 동시적으로 분석과 분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각 열은 빈곤 발달레적집단 별로 합치면 1.00이 된다. 예를 들어 비빈곤형 집단에서 각각의 비행 발달레적 집단이 될 확률 .276, .172, .357, .115, .080을 모두 합치면 1.00이 된다. 첫 번째로 각각 빈곤 발달레적 집단에서 어떤 유형이든 비행집단이 될 확률은 만성빈곤형 집단이 .809(=.191+.395+.037+.186)로 가장 높았다. 비빈곤형 집단의 경우 어떤 유형이든 비행집단이 될 조건부 확률은 .724로 가장 낮았다. 빈곤증가형 집단(.776)이 저수준빈곤 지속형 집단(.782)보다 어떤 유형의 비행집단이

든 비행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측면에서 낮은 수준의 지속적인 빈곤보다 빈곤이 증가하는 것이 비행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빈곤발달궤적에 조건화된 비행발달궤적의 전이확률

		비행 발달궤적				
		무비행형	후발형	저수준 비행지속형	중단형	만성형
빈 곤 발 달 궤 적	비빈곤형	.276	.172	.357	.115	.080
	빈곤증가형	.224	.164	.448	.069	.095
	저수준빈곤 지속형	.218	.161	.364	.124	.133
	만성빈곤형	.191	.191	.395	.037	.186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인 전이확률에 대해 살펴보았다. 만성빈곤형 집단의 경우 만성형 비행집단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준 빈곤지속형 집단의 경우도 만성형 비행집단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수준이든 높은 수준이든 간에 지속적 빈곤은 비행의 만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빈곤증가형 집단이나 만성빈곤형 집단에서 중단형 비행집단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한 시점에서의 빈곤도 중요하지만 빈곤의 발달궤적이라는 장기적 변화가 비행을 예측하는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4. 빈곤이 청소년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빈곤이 청소년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빈곤 변수에 따른 노동시장참여현황을 학년별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절대빈곤 A변수를 제외하고 빈곤변수별 노동시장참여율, 빈곤변수별 평균 주당노동시간, 빈곤변수별 평균 노동지속기간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그 다음 가설 검증을 위하여 통제변수들을 분석에 투입하고, 노동시장참여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뒤, 절대빈곤A변수, 절대빈곤B변수, 상대빈곤A변수, 상대빈곤B변수의 효과를 순서대로 검증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주당노동시간과 노동지속기간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빈곤관련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중학교 3학년시점부터 고등학교 3학년시점까지 연차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학년별 빈곤변수에 따른 노동시장참여현황

빈곤변수별 노동시장참여율을 제시한 <표 III-20>을 살펴보면, 절대빈곤 B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노동시장참여율은 빈곤층과 비빈곤층 모두 학년이 올라가면서 참여율이 증가하지만, 빈곤층의 증가폭이 더욱 크기 때문에 두 집단간 노동시장참여율의 차이가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빈곤A와 상대빈곤B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다만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노동시장참여율의 차이가 절대빈곤B에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상대빈곤A, 상대빈곤B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빈곤의 소득기준이 올라갈수록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참여율의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것은 빈곤의 정도가 클수록 노동시장참여율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III-20> 빈곤변수별 노동시장참여율

절대빈곤B 기준	중3	고1	고2	고3
빈곤층	16.5%	22.4%	27.7%	47%
비빈곤층	10.9%	11.2%	14.2%	27.4%
차이	5.6%	11.2%	13.5%	19.6%
상대빈곤A 기준	중3	고1	고2	고3
빈곤층	14.8%	22.9%	26.1%	45.6%
비빈곤층	10.9%	10.9%	14.0%	27.0%
차이	3.9%	12%	12.1%	18.6%
상대빈곤B 기준	중3	고1	고2	고3
빈곤층	14.6%	20.6%	25.7%	44.4%
비빈곤층	10.9%	10.8%	13.7%	26.5%
차이	3.7%	9.8%	12%	17.9%

빈곤변수별 평균 주당노동시간을 제시한 <표 III-21>를 살펴보면, 절대빈곤B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평균 주당노동시간은 빈곤층과 비빈곤층 모두 학년이 올라가면서 평균노동시간이 증가하지만, 비빈곤층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3과 고1에서는 빈곤층의 평균노동시간이 비빈곤층보다 많지만, 고2와 고3에서는 반대로 비빈곤층의 평균노동시간이 오히려 더 많았다.

상대빈곤A는 대체로 절대빈곤B와 비슷하나, 빈곤층의 평균노동시간이 고2에서 약간 감소하였다가 고3에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평균노동시간의 차이가 절대빈곤B와 마찬가지로 고2에서 역전하지만, 고3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다르다.

상대빈곤B는 전체적인 경향이 상대빈곤A와 매우 유사하지만, 다만 고3에서 빈곤층의 평균노동시간이 다시 비빈곤층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환원되는 현상이 나타난 점이 다르다.

그리고 모든 빈곤변수에서 공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중3에서 빈곤층의 평균노동시간이 비빈곤층의 약 2배라는 점과 고1에서 비빈곤층의 평균노동시간이 중3보다 약 2배 정도 급증한다는 점이다.

<표 III-21> 빈곤변수별 평균 주당노동시간

절대빈곤B 기준	중3	고1	고2	고3
빈곤층	23.6	25.3	25.4	28.4
비빈곤층	11.8	22.7	26.0	30.6
차이	11.8	2.6	-0.6	-2.2
상대빈곤A 기준	중3	고1	고2	고3
빈곤층	22.1	25.9	23.9	30.4
비빈곤층	11.9	22.5	26.2	30.4
차이	10.2	3.4	-2.3	0
상대빈곤B 기준	중3	고1	고2	고3
빈곤층	20.0	26.0	24.6	31.0
비빈곤층	11.9	22.4	26.2	30.3
차이	8.1	3.6	-1.6	0.7

빈곤변수별 평균 노동지속기간을 제시한 <표 III-22>을 살펴보면, 절대빈곤B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평균 노동지속기간은 빈곤층에서는 중3에서 고2까지 증가하다가 고3에서 정체되는데 비해, 비빈곤층에서는 중3에서 고2까지 증가한 후, 고3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노동지속기간의 차이는 중3에서 고2까지 감소하다가 고3에서 다시 증가하였다.

상대빈곤A에서는 빈곤층과 비빈곤층이 모두 중3에서 고2까지 증가하다가 고3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며, 빈곤층의 감소폭이 비빈곤층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노동지속기간의 차이는 고1에서 감소한 뒤, 고3에서 다시 중3의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상대빈곤B에서는 빈곤층과 비빈곤층이 모두 중3에서 고2까지 증가하다가 고3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나, 상대빈곤A와는 반대로 빈곤층의 감소폭이 비빈곤층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노동지속기간의 차이는 고1에서 감소하였다가 고2에서 다시 증가하였다가 고3에서 소폭 감소하였다.

그리고 모든 빈곤변수에서 공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중3에서 빈곤층의 평균 노동지속기간이 비빈곤층의 약 2배라는 점과 고1에서 비빈

곤층의 평균노동지속기간이 중3보다 약 3배 정도 급증한다는 점이다.

<표 III-22> 빈곤변수별 평균 노동지속기간

절대빈곤B 기준	중3	고1	고2	고3
빈곤층	19.5	31.4	46.6	46.6
비빈곤층	10.7	29.1	44.6	37.7
차이	8.8	2.3	2	8.9
상대빈곤A 기준	중3	고1	고2	고3
빈곤층	20.6	32.8	48.8	48.0
비빈곤층	10.5	28.8	43.7	37.3
차이	10.1	4	5.1	10.7
상대빈곤B 기준	중3	고1	고2	고3
빈곤층	18.4	31.4	54.8	45.8
비빈곤층	10.5	29.0	42.6	37.0
차이	7.9	2.4	12.2	8.8

2) 빈곤이 노동시장 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

절대빈곤A가 노동시장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표 III-23>를 살펴보면, 절대빈곤A가 고1에서 미미한 부적효과를, 고3에서 뚜렷한 부적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1과 고3에서 소득이 적을수록 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현상이 나타나며, 고3에서 보다 분명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절대빈곤A가 노동시장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고2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노동시장참여여부에 대한 절대빈곤A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일반계고 학생보다는 전문계고 학생이, 대도시보다는 비대도시지역의 학생이, 성적이 낮을수록, 휴대폰비용이 많을수록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모든 학년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났다. 부 학력은 고2와 고3에서 미미한 부적효과를 보였으며, 성별은 모든 학년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23> 절대빈곤A가 노동시장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

	중3		고1		고2		고3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절대빈곤A	-.046	.955	-.130 ⁺	.878	-.066	.936	-.124 [*]	.883
성	-.036	.965	-.090	.914	-.093	.911	.164	1.178
교급			.566 [*]	1.762	1.573 ^{***}	4.819	.994 ^{***}	2.701
부 학력	-.006	.994	.026	1.027	-.114 ⁺	.892	-.079 ⁺	.924
지역	-.550 ^{**}	.577	-.602 ^{**}	.548	-.393 ^{**}	.675	-.206 ⁺	.814
성적	.026 ^{***}	1.026	.017 ^{***}	1.017	.009 ^{**}	1.009	.015 ^{***}	1.015
휴대폰비용	.000	1.000	.000 ^{**}	1.000	.000 [*]	1.000	.000 ^{**}	1.000
Nagelkerke R ²	.115		.140		.177		.136	

1) ⁺ p < .01, ^{*} p < .05, ^{**} p < .01, ^{***} p < .001

절대빈곤B가 노동시장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표 III-24>를 살펴보면, 절대빈곤B가 고3에서만 정적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생계비를 빈곤의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빈곤 청소년일수록 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현상이 고3에서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일반계고 학생보다는 전문계고 학생이, 대도시보다는 비대도시지역의 학생이, 성적이 낮을수록, 휴대폰비용이 많을수록 노동시장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학년에 걸쳐 나타났다. 부 학력은 고2와 고3에서 유의미한 부적효과를 보였으며, 성별은 모든 학년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24> 절대빈곤B가 노동시장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

	중3		고1		고2		고3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절대빈곤B	-.287	.750	.488	1.629	.026	1.026	.481*	1.617
성	-.016	.984	-.073	.930	-.084	.920	.167	1.182
교급			.601**	1.825	1.600***	4.955	1.015***	2.760
부 학력	-.034	.967	.000	1.000	-.134*	.874	-.099*	.906
지역	-.557**	.573	-.615***	.541	-.399**	.671	-.211*	.810
성적	.027***	1.027	.017***	1.018	.009**	1.009	.015***	1.015
휴대폰비용	.000	1.000	.000**	1.000	.000 ⁺	1.000	.000**	1.000
Nagelkerke R ²	.116		.139		.176		.135	

1) ⁺ p < .01, * p < .05, ** p < .01, *** p < .001

상대빈곤A가 노동시장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표 III-25>을 살펴보면, 상대빈곤A가 고3에서만 정적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의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빈곤 청소년일수록 노동 시장참여율이 높은 현상이 고3에서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일반계고 학생보다는 전문계고 학생이, 대도시보다는 비대도시 지역의 학생이, 성적이 낮을수록, 휴대폰비용이 많을수록 노동시장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학년에 걸쳐 나타났다. 부 학력은 고2와 고3에서 부적효과를 보였으며, 성별은 모든 학년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25> 상대빈곤A가 노동시장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

	중3		고1		고2		고3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상대빈곤A	-.281	.755	.436	1.547	-.003	.997	.509*	1.664
성	-.016	.984	-.067	.936	-.118	.889	.177	1.194
교급			.600**	1.823	1.630***	5.102	1.021***	2.776
부 학력	-.039	.962	.000	1.000	-.124*	.883	-.094*	.910
지역	-.546**	.579	-.618***	.539	-.404**	.668	-.215*	.807
성적	.027***	1.027	.017***	1.018	.009**	1.009	.015***	1.015
휴대폰비용	.000	1.000	.000**	1.000	.000*	1.000	.000**	1.000
Nagelkerke R ²	.116		.139		.179		.137	

1) + p < .01, * p < .05, ** p < .01, *** p < .001

상대빈곤B가 노동시장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표 III-26>을 살펴보면, 상대빈곤B가 고3에서만 정적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소득의 50%를 빈곤의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빈곤 청소년일수록 노동시장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고3에서만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일반계고 학생보다는 전문계고 학생이, 대도시보다는 비대도시지역의 학생이, 성적이 낮을수록, 휴대폰비용이 많을수록 노동시장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학년에 걸쳐 나타났다. 부 학력은 고2와 고3에서 부적효과를 보였으며, 성별은 모든 학년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26> 상대빈곤B가 노동시장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

	중3		고1		고2		고3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상대빈곤B	-.321	.725	.319	1.376	.044	1.045	.487**	1.627
성	-.019	.981	-.072	.931	-.100	.905	.176	1.192
교급			.611**	1.842	1.608***	4.991	1.006***	2.734
부 학력	-.040	.960	-.001	.999	-.124*	.883	-.091*	.913
지역	-.546**	.579	-.616***	.540	-.347*	.707	-.208*	.812
성적	.027***	1.027	.018***	1.018	.009**	1.009	.015***	1.015
휴대폰비용	.000	1.000	.000**	1.000	.000 ⁺	1.000	.000**	1.000
Nagelkerke R ²	.116		.138		.172		.137	

1) ⁺ p < .01, * p < .05, ** p < .01, *** p < .001

노동시장참여여부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고3의 시점에서만 모든 빈곤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3의 시점에서, 빈곤가족 청소년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비빈곤가족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의 차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고3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서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가정의 경제력의 효과를 검증한 장원섭(2001)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고3에서 빈곤청소년과 비빈곤청소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빈곤층과 비빈곤층간에 청소년의 소비욕구에 대한 부모의 지원과 대입준비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고3의 시점은 중 고등학교 기간동안 소비수준이 가장 높을 때이며, 이에 따라 용돈의 부족으로 인한 노동시장참여의 열망이 가장 강할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층 부모와 비빈곤층 부모간의 경제적 지원의 차이가 청소년 노동시장참여율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 늘어난 소비욕구를 유지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이 늘거나, 혹은 본인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수밖에 없는데, 빈곤층의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매우 제한되는 반면, 비빈곤층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빈곤청소년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입준비를 위한 부모의 기대와 태도의 차이가 청소년 노동시장참여율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 고3의 시기에 이르면 비빈곤층 부모들은 자녀의 성적이 낮더라도 대학을 보내기 위해 자녀로 하여금 일보다는 학업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반면, 빈곤층 부모들은 자녀의 진학에 따르는 학비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고, 한편으로 자녀의 노동이 - 용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 생계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으므로, 일보다 학업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기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3) 빈곤이 주당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노동시장참여경험자를 대상으로 절대빈곤A가 주당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표 III-27>을 살펴보면, 절대빈곤A가 중3과 고1에서 부적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3과 고1에서 소득이 적을수록 1주일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고1~고3동안 여학생의 노동시간이 남학생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고1시기에는 대도시보다는 비대도시지역의 학생이, 휴대폰비용이 많을수록 1주일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고2시기에는 일반계고 학생보다는 전문계고 학생이, 성적이 낮을수록 1주일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절대빈곤A가 주당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중3	고1	고2	고3
절대빈곤A	-.181 ⁺	-.206 ^{**}	.073	-.014
성	-.011	-.124 ⁺	-.133 [*]	-.126 ^{**}
교급		.121	.122 ⁺	.057
부 학력	-.039	-.043	-.072	.022
지역	-.129	-.224 ^{**}	.003	.023
성적	.152	-.116	.116 ⁺	.050
휴대폰비용	.097	.184 [*]	.063	.025
Adjusted R ²	.058	.134	.033	.012

1) ⁺ p < .0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노동시장참여경험자를 대상으로 절대빈곤B가 주당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표 III-28>을 살펴보면, 절대빈곤B가 중3과 고1에서는 정적효과를 반면, 고2에서는 부적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3과 고1에서는 빈곤청소년이 비빈곤청소년보다 노동시간이 긴데 비해서, 고2에서는 빈곤청소년이 비빈곤청소년보다 오히려 노동시간이 짧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고1 이후 여학생의 노동시간이 남학생보다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고1시기에는 일반계고 학생보다는 전문계고 학생이, 대도시보다는 비대도시지역의 학생이, 휴대폰비용이 많을수록 1주일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고2시기에는 일반계고 학생보다는 전문계고 학생이, 성적이 낮을수록 1주일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절대빈곤B가 주당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중3	고1	고2	고3
절대빈곤B	.245**	.121 ⁺	-.124*	-.054
성	.012	-.122 ⁺	-.127*	-.120**
교급		.149 ⁺	.114 ⁺	.069
부 학력	-.044	-.083	-.076	.009
지역	-.127	-.216**	.008	.014
성적	.145	-.100	.111 ⁺	.056
휴대폰비용	.076	.172*	.083	.019
Adjusted R ²	.088	.113	.043	.015

1) ⁺ p < .0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노동시장참여경험자를 대상으로 상대빈곤A가 주당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표 III-29>을 살펴보면, 상대빈곤A가 중3과 고1에서는 정적효과를 반면, 고2에서는 부적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3과 고1에서는 빈곤청소년이 비빈곤청소년보다 노동시간이 긴데 비해서, 고2에서는 빈곤청소년이 비빈곤청소년보다 오히려 노동시간이 짧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고2와 고3에서 여학생의 노동시간이 남학생보다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고1시기에는 일반계고 학생보다는 전문계고 학생이, 대도시보다는 비대도시지역의 학생이, 휴대폰비용이 많을수록 1주일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고2시기에는 일반계고 학생보다는 전문계고 학생이, 성적이 낮을수록 1주일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상대빈곤A가 주당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중3	고1	고2	고3
상대빈곤A	.234*	.121 ⁺	-.151*	-.005
성	.012	-.120	-.125*	-.125**
교급		.152 ⁺	.114 ⁺	.059
부 학력	-.043	-.082	-.087	.017
지역	-.148 ⁺	-.217**	.009	.022
성적	.139	-.107	.113 ⁺	.052
휴대폰비용	.061	.176*	.083	.023
Adjusted R ²	.082	.113	.048	.012

1) ⁺ p < .0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노동시장참여경험자를 대상으로 상대빈곤B가 주당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표 III-30>을 살펴보면, 상대빈곤B가 중3과 고1에서는 정적효과를 반면, 고2에서는 부적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3과 고1에서는 빈곤청소년이 비빈곤청소년보다 노동시간이 긴데 비해서, 고2에서는 빈곤청소년이 비빈곤청소년보다 오히려 노동시간이 짧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고1~고3동안 여학생의 노동시간이 남학생보다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고1시기에는 일반계고 학생보다는 전문계고 학생이, 대도시보다는 비대도시지역의 학생이, 휴대폰비용이 많을수록 1주일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고2시기에는 일반계고 학생보다는 전문계고 학생이, 성적이 낮을수록 1주일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0> 상대빈곤B가 주당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중3	고1	고2	고3
상대빈곤B	.244**	.147*	-.180**	.020
성	.021	-.126 ⁺	-.134*	-.125**
교급		.156 ⁺	.109 ⁺	.058
부 학력	-.039	-.077	-.088	.023
지역	-.156 ⁺	-.217**	.000	.023
성적	.145	.115	.105 ⁺	.050
휴대폰비용	.063	.178*	.082	.025
Adjusted R ²	.087	.119	.057	.012

1) ⁺ p < .0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주당노동시간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절대빈곤 B, 상대빈곤A, 상대빈곤B에서 중3과 고1에서 정적효과가, 고2에서 부적효과가 검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3과 고1에서는 빈곤청소년이 비빈곤청소년보다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과 고2에서는 반대로 빈곤청소년이 비빈곤청소년보다 노동시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빈곤층의 평균 주당노동시간이 많았으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빈곤층의 평균 주당노동시간의 증가율이 빈곤층보다 높음으로 인해, 고2의 시점에서는 비빈곤층의 평균 주당노동시간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고3에서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빈곤이 노동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노동시장참여경험자를 대상으로 절대빈곤A가 노동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표 III-31>를 살펴보면, 절대빈곤A는 모든 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고3에서 여학생의 지속기간이 남학생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고, 고1~고3동안 일반계고 학생보다는 전문계고 학생이 지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3에서 성적

이 낮을수록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절대빈곤A가 노동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중3	고1	고2	고3
절대빈곤A	.017	-.056	-.085	-.042
성	-.007	.029	.008	-.071 ⁺
교급		.170 ⁺	.110 ⁺	.291 ^{***}
부 학력	.013	-.052	.073	.023
지역	-.004	-.026	-.055	-.048
성적	.214 [*]	-.016	-.040	-.026
휴대폰비용	.155	.029	.058	-.042
Adjusted R ²	.036	.010	.009	.080

1) ⁺ p < .0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노동시장참여경험자를 대상으로 절대빈곤B가 노동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표 III-32>을 살펴보면, 절대빈곤B는 모든 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고1~고3동안 일반계고 학생보다는 전문계고 학생이 지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3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 절대빈곤B가 노동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중3	고1	고2	고3
절대빈곤B	.020	.101	.028	.009
성	-.008	.030	.009	-.067
교급		.172*	.124*	.296***
부 학력	.024	-.052	.055	.014
지역	.001	-.027	-.056	-.052
성적	.211*	-.014	-.040	-.023
휴대폰비용	.156	.025	.052	-.044
Adjusted R ²	.036	.017	.004	.079

1) + p < .0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노동시장참여경험자를 대상으로 상대빈곤A가 노동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표 III-33>를 살펴보면, 상대빈곤A는 중3에서 노동지속기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3에서 빈곤청소년의 노동지속기간이 비빈곤청소년의 노동지속기간보다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고3에서 여학생의 지속기간이 남학생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고, 고1~고3동안 일반계고 학생보다는 전문계고 학생의 지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3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 상대빈곤A가 노동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중3	고1	고2	고3
상대빈곤A	.162 ⁺	.092	-.006	.064
성	-.006	.032	.004	-.072 ⁺
교급		.175 [*]	.154 [*]	.289 ^{***}
부 학력	.062	-.053	.064	.020
지역	.002	-.028	-.054	-.045
성적	.193 [*]	-.019	-.025	-.029
휴대폰비용	.142	.029	.057	-.041
Adjusted R ²	.060	.015	.009	.082

1) ⁺ p < .0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노동시장참여경험자를 대상으로 상대빈곤B가 노동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표 III-34>를 살펴보면, 상대빈곤B는 중3에서 노동지속기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3에서 빈곤청소년의 노동지속기간이 비빈곤청소년의 노동지속기간보다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고3에서 여학생의 지속기간이 남학생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고, 고1~고3동안 일반계고 학생보다는 전문계고 학생의 지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3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상대빈곤B가 노동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중3	고1	고2	고3
상대빈곤B	.196*	.066	.064	.062
성	.002	.029	.020	-.068 ⁺
교급		.179*	.116 ⁺	.292***
부 학력	.072	-.057	.063	.025
지역	-.004	-.026	-.058	-.047
성적	.195*	-.019	-.032	-.026
휴대폰비용	.142	.029	.059	-.044
Adjusted R ²	.072	.011	.005	.082

1) ⁺ p < .0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Coefficient)임

노동지속기간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중3의 시기에만 상대빈곤A와 상대빈곤B에서 빈곤의 정적효과가 검증되었는데, 이것은 이 시기에 빈곤청소년이 비빈곤청소년보다 노동지속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빈곤A와 상대빈곤B에서 중3의 시기에 빈곤층의 평균 노동지속기간이 비빈곤층의 약 2배에 이르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비율의 크기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빈곤이 청소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1) 빈곤이 청소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빈곤이 청소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절대빈곤유무, 욕구소득비, 중위소득 기준 상대빈곤유무, 평균소득 기준 상대빈곤 유무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학업성취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II-35>은 중2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며, <표 III-36>은 중3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표 III-35>을 살펴보면, 모형 1은 절대빈곤층의 청소년들일수록 학업성취가 낮음을 알 수 있고, 모형 2에서는 절대빈곤집단의 청소년들일수록 학업성취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모형 3에서는 중위소득 기준 상대빈곤선 이하의 청소년들일수록 학업성취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모형 4에서는 평균소득 기준 상대빈곤선 이하의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비빈곤집단의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성취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빈곤감을 많이 느끼는 청소년들일수록 학업성취도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절대빈곤, 중위소득 기준 상대빈곤, 평균소득 기준 상대빈곤, 주관적 빈곤 모두 비빈곤 집단의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성취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빈곤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6>에서도, 모형 1과 모형 2에서 절대빈곤 청소년들일수록 학업성취가 낮으며, 모형 3과 모형 4에서 상대적 빈곤층의 청소년들이 비빈곤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성취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 5의 주관적 빈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떤 기준의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빈곤층 청소년들에게 있어 빈곤이 학업성취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5> 빈곤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중2)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절대빈곤더미(유=1)	-0.075***				
절대빈곤(육구소득비더미; 1 < 육구소득비 ≤ 2기준)					
육구소득비 ≤ 1 더미 (빈곤집단)		-0.054**			
2 < 육구소득비 ≤ 3 더미		0.056**			
3 < 육구소득비 ≤ 4 더미		0.072***			
4 < 육구소득비 ≤ 5 더미		0.055**			
5 < 육구소득비 ≤ 6 더미		0.042*			
6 < 육구소득비 더미		0.045**			
상대빈곤(중위소득기준)더미 (유=1)			-0.087***		
상대빈곤(평균소득기준)더미 (유=1)				-0.092***	
주관적 빈곤					-0.098***
남자더미	0.047**	0.051**	0.049**	0.048**	0.056***
부교육	0.209***	0.183***	0.207***	0.205***	0.205***
모교육	0.136***	0.121***	0.134***	0.133***	0.139***
Adj R ²	0.123***	0.126***	0.125***	0.126***	0.125***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표 III-36> 빈곤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중3)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절대빈곤더미(유=1)	-0.082***				
절대빈곤(욕구소득비더미; 1 < 욕구소득비 ≤ 2 기준)					
욕구소득비 ≤ 1 더미 (빈곤집단)		-0.056**			
2 < 욕구소득비 ≤ 3 더미		0.060**			
3 < 욕구소득비 ≤ 4 더미		0.072***			
4 < 욕구소득비 ≤ 5 더미		0.084***			
5 < 욕구소득비 ≤ 6 더미		0.026			
6 < 욕구소득비 더미		0.035*			
상대빈곤(중위소득기준)더미(유=1)			-0.100***		
상대빈곤(평균소득기준)더미(유=1)				-0.082***	
주관적 빈곤					-0.096***
남자더미	0.082***	0.076***	0.084***	0.082***	0.082***
부교육	0.202***	0.178***	0.197***	0.199***	0.193***
모교육	0.122***	0.106***	0.118***	0.121***	0.130***
R ²	0.117***	0.120***	0.119***	0.117***	0.116***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2) 빈곤이 청소년 희망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번에는 빈곤이 청소년의 희망하는 기대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표 III-37>은 중2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표 III-38>은 중 3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이 청소년의 희망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결과를 찾아보기 어렵고 주관적 빈곤의 경우에

는 청소년의 희망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빈곤 청소년들도 희망하는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비빈곤 집단의 청소년들처럼 교육 기대가 크며, 약간의 심리적인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7> 빈곤이 희망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중2)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절대빈곤더미(유=1)	-0.017				
절대빈곤(욕구소득비더미; 1 < 욕구소득비 ≤ 2 기준)					
욕구소득비 ≤ 1 더미 (빈곤집단)		-0.011			
2 < 욕구소득비 ≤ 3 더미		0.005			
3 < 욕구소득비 ≤ 4 더미		0.038*			
4 < 욕구소득비 ≤ 5 더미		0.043*			
5 < 욕구소득비 ≤ 6 더미		0.024			
6 < 욕구소득비 더미		0.016			
상대빈곤(중위소득기준)더미(유=1)			-0.021		
상대빈곤(평균소득기준)더미(유=1)				-0.023	
주관적 빈곤					-0.051**
남자더미	0.025	0.023	0.025	0.025	0.024
부교육	0.184***	0.168***	0.184***	0.183***	0.177***
모교육	0.110***	0.104***	0.109***	0.109***	0.113***
Adj R ²	0.077***	0.078***	0.078***	0.077***	0.080***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표 III-38> 빈곤이 희망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증3)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절대빈곤더미(유=1)	-0.030				
절대빈곤(욕구소득비더미; 1 <욕구소득비≤2기준)					
욕구소득비≤1 더미 (빈곤집단)		-0.012			
2<욕구소득비≤3 더미		0.044*			
3<욕구소득비≤4 더미		0.056**			
4<욕구소득비≤5 더미		0.061**			
5<욕구소득비≤6 더미		0.025			
6<욕구소득비 더미		0.052**			
상대빈곤(중위소득기준)더미(유=1)			-0.035		
상대빈곤(평균소득기준)더미(유=1)				-0.025	
주관적 빈곤					-0.043*
남자더미	0.009	0.004	0.012	0.009	0.008
부교육	0.207***	0.179***	0.210***	0.207***	0.201***
모교육	0.094***	0.083***	0.092***	0.094***	0.095***
R ²	0.084***	0.085***	0.086***	0.084***	0.082

1) * p < .05, ** p < .01, *** p < .001

2) 표에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IV.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제언

IV.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 비행, 노동시장 참여, 학업성취 등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범주화된 욕구소득비를 객관적 빈곤 변수, 청소년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주관적 빈곤 변수로 정의하고 분석하였다. 빈곤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볼 때, 청소년이 객관적으로 빈곤하거나 주관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느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객관적으로 빈곤하거나 주관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느낄수록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더 호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이 객관적으로 빈곤하거나 주관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느낄수록 우울감을 더 많이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영향은 스트레스 인지, 건강행태, 성별, 부모교육정도, 결손가정 여부를 통제한 후에도 지속되었다. 욕구소득비 1 이하의 절대 빈곤 가정 청소년은 주관적 건강상태, 심리적·정신적 문제, 우울감의 측면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측정된 주관적 빈곤 변수도 청소년의 건강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빈곤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빈곤에 대한 지원대책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빈곤경험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3년(중학교 2학년)에서 2007년(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5개년에 걸쳐 종단적으로 관찰된 빈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변수중심적 접근에서는 그 결과가 거의 유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관적이지도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자료와 관찰대상적 접근을 이용하여 빈곤의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았다. 청소년 패널자료(중2 패널)를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청소년기 비행에는 무비행형, 후발형, 저비행지속형, 중단형, 만성형 등의 5 집단 모형이 최적 모형으로 나타났다. 빈곤이 5개 비행 발달단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빈곤은 무비행집단에 비해 만성형 비행집단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행의 발달단계를 한 시점으로만 분석하는 것이 한계가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도 장기적인 발달단계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비행 발달단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5년간의 빈곤 발달단계는 비빈곤형, 빈곤증가형, 저수준빈곤지속형, 만성빈곤형 등 4집단 모형이 최적모형으로 나타났다. 각 빈곤 발달단계 집단에서 어떤 유형이든 비행집단이 될 확률은 만성빈곤형 집단이 가장 높았고, 비빈곤형 집단이 가장 낮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만성빈곤형 집단의 경우 다른 어떤 빈곤 발달단계보다 만성형 비행집단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준 빈곤지속형 집단의 경우도 만성형 비행집단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증가형 집단이나 만성빈곤형 집단에서 중단형 비행집단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 시점에서의 빈곤도 중요하지만 빈곤의 발달단계이라는 장기적 변화가 비행을 예측하는데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청소년의 만성형 비행화를 예방하기 위해 빈곤에 대한 대책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만성형 빈곤에 대한 대책의 강화가 빈곤 청소년의 비행집단화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빈곤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복지서비스가 예방차원에서 빨리 주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빈곤이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빈곤이 청소년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참여여부에 있어서 고3의 시기에 모든 빈곤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빈곤층의 참여증가율이 비빈곤층보다 높아지는 것은 결국 빈곤청소년의 노동시장참여가 빈곤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한계와 대학진학에 대한 낮은 기대라는 빈곤가족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주당노동시간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3과 고1의 시기에 빈곤청소년의 노동시간이 비빈곤청소년보다 더 긴 반면, 고2의 시기에는 비빈곤청소년의 노동시간이 오히려 빈곤청소년보다 더 길게 나타난 점과 상대빈곤변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고2의 시기에 빈곤청소년의 주당평균노동시간이 감소한 반면, 비빈곤청소년의 주당평균노동시간이 증가한 현상은 고2의 시기에 노동시장내에서 빈곤청소년과 비빈곤청소년간의 구직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빈곤청소년의 경우 가족의 빈곤으로 인하여 일찍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중학교 시기에 비빈곤청소년에 비하여 참여율이 높고, 주당노동시간도 길지만, 고등학교 진학 이후 비빈곤청소년의 노동시장참여율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내에서 일자리 경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셋째, 노동지속기간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3의 시기에만 빈곤청소년의 노동지속기간이 비빈곤청소년보다 길지만, 그 이후에는 노동지속기간의 차이가 없어진 현상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빈곤이 청소년의 노동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빈곤청소년은 비빈곤청소년보다 일찍 노동시장에 참여하며, 단기간의 일보다는 지속적인 일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일하는 비빈곤청소년에서도 이와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노동지속기간에 있어서 빈곤청소년과 비빈곤청소년의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 빈곤 청소년의 생계형 노동시장 참여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청소년 빈곤대책의 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빈곤청소년은 비빈곤청소년에 비하여 노동시장참여가능성이 높지만, 노동시장내에서 비빈곤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빈곤청소년이 선

호하는 직종에서 비빈곤청소년과의 구직경쟁에서 지속적으로 밀리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이 많으며, 유해업소에의 취업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일하는 빈곤청소년을 위한 공공 일자리창출프로그램과 취업알선과 같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빈곤이 청소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학업성적과 희망교육수준을 중심으로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결과를 살펴보면, 절대빈곤, 상대빈곤, 주관적 빈곤 모두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빈곤집단의 청소년들에게 빈곤은 학업성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빈곤집단의 청소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빈곤 집단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에의 희망과 기대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정책적 학업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정책적 제언

이상의 분석결과들은 빈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매우 풍부한 함의를 담고 있다. 그것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1) 빈곤을 감소를 위한 공적 이전소득 지원정책의 지속 강화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빈곤은 청소년들의 건강, 비행, 노동시장 참여, 학업성취 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였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빈곤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빈곤 청소년들의 건강, 비행, 노동시장 참여, 학업성취 등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빈곤청소년들의 건강, 비행, 노동시장 참여, 학업성취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가구빈곤률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 청소년들의 가구빈곤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바로 공적 이전소득의 직접적인 지원이다. 즉, 빈곤 청소년들의 가구에 직접적인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가구의 곤궁함을 덜어 빈곤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건강문제, 비행문제, 노동시장 참여 문제, 학업성취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지원 정책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회보장수혜정책과 아동수당 정책이 있다. 이중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빈곤을 감소에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동수당 정책은 논의만 무성할 뿐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첫째, 빈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근본적인 방향에서도 모호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의 지속적 강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이 빈곤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을 강화한 결과 빈곤가구의 빈곤율 감소에 효과를 거두고 이에 따라 빈곤가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큰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강화와 확대가 이뤄져야 아동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의 지속적 강화와 함께,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수당제도는 출산률 제고정책, 보편적 급여의 성격 등 때문에 빈곤가구 청소년들의 빈곤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보다는 보편적인 출산률 제고정책으로 인식되어온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급여의 연령제한, 저소득층 할증 등의 여러 가지 제한점을 두고 실시한다면 보편적 급여의 형식을 띠면서도 아동청소년의 빈곤률 감소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사적 이전소득 강화책으로서의 기부문화의 활성화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등 공적 이전소득정책과 함께 민간 사적 이전소득의 활성화도 함께 도모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현금 및 현물 기부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교회헌금 등의 기부형태를 제외하면 선진국에 비해 사적 이전소득의 네트워크화 및 문화화가 많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첫째, 빈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검토 등 공적 이전소득 정책과 함께 사적 이전소득의 활성화가 문화화되어 사회에 정착해야 한다.

둘째, 아울러,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기때부터 기부교육을 통한 기부문화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문화로 자리잡게 할 필요가 있다. 어릴 때부터 기부를 권장할만한 사회적 행위의 한 형태로 인식하게 하면 그 아동청소년들이 자라나는 성인기에는 기부문화가 사적이전소득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만큼 보편적으로 성숙될 수 있을 것이다.

3) 일하는 빈곤 청소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청소년 탈빈곤정책에는 앞에서 살펴본 공적 이전소득 지원정책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외에 빈곤가구의 가구주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주고 적합한 일자리를 지원해서 조기에 독립적으로 자립해서 빈곤을 스스로 탈출할 수 있게 만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있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빈곤가구의 가구주의 노동력을 통해 빈곤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감소를 위한 노동시장 진입은 빈곤의 가구주뿐만 아니라 빈곤 청소년들도 많이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빈곤 가구주에게만이 아니라 빈곤 청소년들 중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일하는 빈곤 청소년들에게도 일정부분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빈곤 청소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빈곤 청소년들에게 일

자리를 알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빈곤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학업 지원 강화 : 각종 start 사업의 강화

빈곤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현금지원과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과 같은 경제적인 해결책 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층 청소년들은 빈곤 때문에 건강문제, 비행문제, 학업문제 등 경제적인 문제 이외의 문제에도 종합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빈곤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현금지원 및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같은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의료, 비행예방, 학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바람직하다. 이러한 시각은 빈곤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접근 방식을 경제적 지원에서 인적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이라는 사회투자론적인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각종 start사업들이 이러한 시각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희망스타트는 취약지역 거주 12세이하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육 및 교육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시범사업이 시행되어 긍정적인 시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We Start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강지원, 보육, 교육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Head Start나 영국의 Sure Start 사업도 이러한 목적의 사업이다.

따라서 빈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공사적 이전소득의 지원, 적극적 일자리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방안 이외에 각종 start사업을 통한 건강서비스, 학업지원, 비행예방과 같은 각종 종합적인 발달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영호·조성일·양승미·이무송(2005).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과 건강 관련 행태의 차이: 한국청소년패널 조사 결과. 예방의학회지, 제38권 제4호, pp.391-400.
- 건강세상네트워크(2006). 소득수준에 따른 어린이 건강수준 차이 확인하다.
-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원구, vol 22, 가을, pp5-32.
- 구인회(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2호, pp.351-374.
- 구인회·박현선·정익중(2006).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10(3): 269-296.
- 구자경(2004).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제8집, pp.39-57.
- 권중돈(2000). “빈곤가족의 기능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목원대학교 논문집, 38(1), 141-169.
- 김광혁(2006). 빈곤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pp.801-828.
- 김기현(2003). 일하는 고등학생들 - 재학 중 시간제 취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37집6호.
- 김미숙외(2007).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성일·정용철(2001).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가정환경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12권 제1호, pp.5-27.
- 김영아(2006). 빈곤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모형.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성·손병돈(2004),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 도종수(2001),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와 대책, 사회복지정책 제13집.
- 류연규·최현수, 2003,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수준과 변화경향: 1982~2002

- 년 도시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6호.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1, 23-52.
- 보건복지가족부, 고사·보도자료, 각 년도.
-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2006).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2005):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수준 및 보건의식행태.
- 보건복지부(2007). 참여정부 아동종합대책 성과평가.
- 성주현(2003). “취약계층의 빈곤, 건강의 이중위협” 김창엽 편 <빈곤과 건강>, 서울: 한울아카데미, 137-163.
- 양정호(2004), 고등학생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분석, 교육사회학 연구 제14권제1호.
- 오경자·문경주(2006).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가족위험요인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5권 제1호, pp.59-76.
- 이근복·정우석(2007).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 스트레스의 다층분석.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pp.217-230.
- 이영·신은주·나중혜(1995).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2)". 대한가정학회지, 33(3).
- 이재연·백정재(1997).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12(1), 71-93.
- 이철위·박창남·정혜영(2000), 청소년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장원섭(2001), 중고등학생 시간제취업의 현실과 가능성,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정익중(2002). 빈곤 편모가족을 위한 이세대(二世代)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8, 231-258.
- 정익중(2003). “빈곤아동의 문화생활과 박탈” 한국아동복지학회 제19회 학술대회 자료집.

- 정익중 외.(2005).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사회복지학, 57(3), 105-131.
- 질병관리본부(2007). 제1차(2005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 최용준 · 정백근 · 조성일 · 정최경희 · 장숙량 · 강민아 · 강영호(2007). 건강 불평등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의 개념과 활용. 예방의학회지, 제40권 제6호, pp.475-486.
- 통계청, 가계조사자료, 2003~2007년.
- 한경혜(2000),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11권2호.
- 한중혜(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의 따른 역량지각 및 자아존중감.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dler, N. E., Boyce, T., Chesney, M. A., Folkman, S., & Syme, S. L.(1993).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health: No easy solution.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9, 3140-3145.
- Barling(1990), *Employment, stress and family functioning*. New York.
- Becker, G(1964), *Human capital*,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Becker, G. S. and N. Tomes(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S1-S39.
- Boivin, M., & Begin, G.(1989). Peer status and self-perception among early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case of the rejec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0, 591-596.
- Bradley R. H. & Corwyn, R. F.(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3, pp. 371-399.
- Brooks-Gunn, J.(1995). Children in families in communities: Risk and intervention in the Bronfenbrenner tradition. In P. Moen, G. H. Elder Jr., & K. Luscher (Eds.), *Examining lives in context: Perspectives on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pp.467-51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rooks-Gunn, J., & Duncan, G. J.(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 55-71.

- Chen, E. Martin, A. D. & Matthews, K. A.(2005).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Do gradients differ within childhood and adolescence?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62 No. 9, pp. 2161-2170.
- Chung, I.-J.(2004).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antisocial behavior: Focusing on psychosocial mediating mechanisms.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4, 355-380.
- Chung, I.-J., & Hawkins, J. D.(2002). Developmental predictors of divergent offending trajectories among poor and non-poor childr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0, 173-199.
- Chung, I.-J., Hawkins, J. D., Gilchrist, L. D., Hill, K. G., & Nagin, D. S.(2002). Identifying and predicting offending trajectories among poor children. *Social Service Review*, 76, 663-685.
- Chung, I.-J., Hill, K. G., Hawkins, J. D., Gilchrist, L. D., & Nagin, D.(2002). Childhood predictors of offense trajector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9, 60-90.
- Chung, I.-J., Nagin, D. S., Hawkins, J. D., & Hill, K. G.(2001). A didactic example of mixture modeling applicable to the study of development in adolescent offending.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17, 197-218.
- Cicchetti, D., Rogosch, F. A., Lynch, M., & Holt, K. D.(1993). Resilience in maltreated children: Processes leading to adaptive outcomes.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5, 629-648.
- Coie, J. D.(1990). Toward a theory of peer reje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365-40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ie, J. D., & Miller-Johnson, S.(2001). Peer factors and interventions. In R. Loeber & D. P. Farrington (Eds.), *Child delinquents: Development, intervention, and service needs* (pp.191-209).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Conger, R. D., Conger, K. J., & Elder, G. H.(1997). Family economic hardship and adolescent adjustment: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es. In G. J. Duncan & J. Brooks-Gunn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pp.288-310).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onger, R. D., Ge, X., Elder, G. H., Lorenz, F. O. & Simons, R. L.(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541-561.
- Corcoran, M.(2000). Mobility, persistence, and the intergenerational determinants of children's success. *Focus*, Vol. 21 No. 2, pp. 16-20.
- Crick, N, R., & Grotpeter, J. K.(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 2328-2338.
- Crick, N. R., & Dodge, K. A.(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Dodge, K. A.(1991). Emotion an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J. Garber & K. A. Dodge (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function* (pp. 159-18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dge, K. A.(1993). Social-cognitive mechanisms in the development of conduct disorder and dep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559-584.
- Dodge, K. A., & Coie, J. D.(1987).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lay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46-1158.
- Dodge, K. A., & Feldman, E.(1990). Issues in social cognition and sociometric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119-155).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dge, K. A., & Newman, J. P.(1981). Biased decision making processes in aggressive boy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375-379.
-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1990). Mechanisms in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250, 1678-1683.

- Downey, D. B.(1994). The school performance of children from single-mother and single-father families: Economic or interpersonal depriv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15, 129-147.
- Downs, S. W., Costin, L. B., & McFadden, E. J.(1996). *Child welfare and family services*. White Plains, NY: Longman.
- Dubow, E. F., & Ippolito, M. F.(1994). Effects of poverty and quality of the home environment on changes in the academic and behaviora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 401-412.
- English, D.(1998). The extent and consequences of child maltreatment. *The Future of Children*, 8(1), 39-53.
- Farber, E. A., & Egeland, B.(1998). Invulnerability among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In E. J. Anthony & B. J. Cohler (Eds.), *The invulnerable child* (pp. 253-288). New York: Guilford Press.
- Fergusson, D. M., Horwood, L. J., & Nagin, D. S.(2000). Offending Trajectories in a New Zealand Birth Cohort. *Criminology*, 38, 525-51.
- Garber, J., Quiggle, N. L., Panak, W., & Dodge, K. A.(1991). *Aggression and depression in children: Comorbidity, specificity, and cognitive processing*.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arnezy, N.(1991).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4, 416-430.
- Garnezy, N.(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Gerard, J. M., & Buehler, C.(1999). Multiple risk factors in the family environment and youth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343-361.
- Goodman, E.(1999). The role of socioeconomic status gradients in explaining differences in US adolescents'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89 No. 10, pp. 1522-1528.

- Goodman, E. Huang, B. Wade, T. J. & Kahn, R. S.(2003).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relation of socioeconomic status to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Dose school contest matter? *The Journal of Pediatrics*, Vol. 143 No. 4, pp. 451-456.
- Gouze, K. R.(1987). Attention and social problem solving as correlates of aggression in preschool mal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181-197.
- Hagan, J.(1994). *Crime and disrepute*. Thousand Oaks: Pine Forge Press.
- Hanson, T., McLanahan, S., & Thomson, E.(1997). Economic resources, parental practices, and children's well-being. In G. J. Duncan & J. Brooks-Gunn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pp.190-238).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Hernandez, L. P.(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Herrenkohl, T. I., Huang, B., Kosterman, R., Hawkins, J. D., Catalano, R. F., & Smith, B. H.(2001). A comparison of social development processes leading to violent behavior in late adolescence for childhood initiators and adolescent initiators of viol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 45-63.
- Horan and Hargis(1991). Children's work and schooling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family economy, *ASR* Vol 56.
- Huston, A. C.(1991). Antecedents, consequences, and possible solutions for poverty among children. In A. C. Huston (Ed.), *Children in poverty: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pp.282-315).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ymel, S., Wagner, E., & Butler, L. J.(1990). Reputational bias: View from the peer group.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156-188).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ithly and Deseran(1995), *Households, Local labor markets, and Youth labor*

- force participation, *Youth and Society* Vol.26 No4.
- Kirby L. D., & Fraser, M. W.(1997).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 In M. W. Fraser (Ed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Washington, DC: NASW Press.
- Korenman, S., Miller, J. E., & Sjaastad, J. E.(1995). Long-term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 127-151.
- Lempers, J., & Clark-Lempers, D., & Simons, R.(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5-49.
- Lerman and Ooms(1988), *Family influence on transition to adult job market*. Washington, DC.
- Liaw, E., & Brooks-Gunn, J.(1994). Cumulative familial risks and low-birthweight children's cognitive and behavioral develop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 360-372.
- Loeber, R.(1990). Development and risk factors of juvenile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 1-41.
- Luthar, S. S.(1999). *Poverty and children's adjustment*.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ayer, S. E.(1997). *What money can't buy: Family income and children's life chanc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cCormick, M. C., & Brooks-Gunn, J.(1989). Health car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H. Freeman & S. Levine (Eds.), *Handbook of Medical Sociology* (pp. 347-380).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McLeod, J. D., & Shanahan, M. J.(1993). Poverty, parenting,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351-366.
- McLoyd, V. C.(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 185-204.
- McLoyd, V. C.(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 53 No. 2, pp. 185-204.
- McLoyd, V. C., Jayaratne, T., Ceballo, R., & Borquez, J.(1994). Unemployment

- and work interruption among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s: Effects on parenting and adolescent socioe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5, 562-589.
- Moffitt, T. E.(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1988). Study findings: Study of incidence and prevalence of child abuse and neglect: 1988.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Parker, S., Greer, S., & Zucherman, B.(1988). Double jeopardy: The impact of poverty on early child development. *The Ped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35, 1227-1240.
- Patterson, C. J., Kupersmith, J. B., & Griesler, P. C.(1990). Children's perception of self and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49.
- Patterson, G. R.(1996). Some characteristics of a developmental theory for early-onset delinquency. In M. F. Lenzenweger & J. J. Haugaard (Eds.), *Frontiers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p.81-12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atterson, G. R., & Bank, L.(1989). Some amplifying mechanisms for pathologic processes in families. In M. R. Gunnar & E. Thelen (Eds.), *Systems and development: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22, pp. 167-209).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Patterson, G. R., & Yoerger, K.(1997). A developmental model for late-onset delinquency. In R. Dienstbier & D. W. Osgood (Eds.), *The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44: *Motivation and delinquency* (pp.119-177).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Patterson, G. R., Capaldi, D. M., & Bank, L.(1991). An early starter model for predicting delinquency. In D. J. Pep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139-168).

-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Patterson, G. R., Reid, J. B., & Dishion, T. J.(1992). A social interactional approach: Vol. 4. Antisocial boys. Eugene, OR: Castalia.
- Pecora, P., Whittaker, J., Maluccio, A., Barth, R., & Plotnick, R.(2000). The child welfare challeng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2nd ed.). New York: Aldine De Gruyter.
- Perry, D. G., Kusel, S. J., & Perry, C.(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Peters, E., & Mullis, N.(1997). The role of the family and source of income in adolescent achievement. In G. J. Duncan & J. Brooks-Gunn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pp.340-381).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Plotnick, R.(2000). Economic security for families with children. In P. J. Pecora, J. K. Whittaker, A. N. Maluccio, R. P. Barth, & R. Plotnick. *The Child welfare challenge*(2nd Ed.) (pp.95-127). New York: Aldine de Gruyter.
- Pollite, E. et al.(1985). "Cognitive effects of iron deficiency anemia," *Lancet*, 1: 158-159.
- Rubin, K. H., Bream, L. A., & Rose-Krasnor, L.(1991). Social problem solving and aggression in childhood. In D. J. Pep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219-24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Rutter, M.(1990).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pp. 181-214). New York: Cambridge.
- Sampson, R. J.(1991). Linking the micro and macrolevel dimensions of community social disorganization. *Social Forces*, 70, 43-64.
- Sampson, R. J. & Laub, J. H.(1996). Urban poverty and the family context of delinquency: A new look at structure and process in a classic study. *Child Development*, 65, 523-540.

- Sampson, R. J., & Wilson, W. J.(1994). Toward a theory of race, crime, and urban inequality. In J. Hagan & R. D. Peterson (Eds.), *Crime and inequality* (pp. 37-54).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Schill, McCartin and Meyer(1985), Youth employment: Its relationship to academic and family variabl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26.
- Seccombe, K.(2000). Families in poverty in the 1990s: Trends, causes, consequences, and lessons learne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094-1113.
- Sedlak, A., & Broadhurst, D. D.(1996). *Third National Incidence Study of Child Abuse and Neglect: Final Report*. Washington, DC: 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Simon(1987), *Let's put America back to work*, Chicago.
- Smith, J. R., Brooks-Gunn, J., & Klebanov, P.(1997). The consequences of living in poverty for young children's cognitive and verbal ability and early school achievement. In G. J. Duncan & J. Brooks-Gunn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pp.132-189).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Starr, R. H., MacLean, D. J. & Keating, D. P.(1991). Life-span development outcomes of child maltreatment. In R. H. Starr & D. A. Wolfe (Eds.),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Issues and research* (pp.1-32). New York: Guilford Press.
- Velez, C. D., Johnson, J., & Cohen, P.(1989). A longitudinal analysis of selected risk factors for childhood psychopatholog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8, 861-864.
- West, P.(1997). Health inequalities in the early years: Is there equalisation in youth?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44 No. 6, pp. 833-858.
- Werner, E. E.(1990). Protective factors and individual resilience . In S. J. Meisels & J. P. Shonkoff (Eds.). *Handbook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p.97-116),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rner, E. E., & Smith, R. S.(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Wilson, W. J.(1991). Studying inner-city social dislocations: The challenge of public agenda resear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1-14.

200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8-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KYPS) VI: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임희진·안선영
- 08-R01-1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이경상·임희진·박창남·정익중
- 08-R01-2 청소년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요인 및 결과 / 이경상·안선영
- 08-R02 초·중·고·대학생 의식구조 비교에 의한 미래사회변동 전망 : 세대관 및 교육·정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이창호·김종길·이항우
- 08-R03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최인재·임지연·김형주
- 08-R03-1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 임지연·최인재·김형주
- 08-R03-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청소년종합통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 김형주·최인재·임지연
- 08-R04 청소년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이용실태와 주체적 참여 방안 모색 연구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조혜영·유진이
- 08-R05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연구 : 글로벌 일자리와 관련하여 / 윤철경·유성렬
- 08-R06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맹영임·김민
- 08-R07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양계민·정진경
- 08-R08 청소년 성 의식 및 행동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 백혜정·김은정
- 08-R09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 08-R09-1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통계표]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 08-R10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비교 및 발전방안 연구 / 이해연·서정아·김영호·이용교
- 08-R11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강혜규
- 08-R12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이춘화·성운숙·조아미
- 08-R12-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성운숙·이춘화·유의선
- 08-R1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 김경준·오성배·강태중·정유성·이부미·조정아
- 08-R13-1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연구 / 이수정·김현아·원재연·윤상석
- 08-R13-2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대안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연구 / 정병호·김찬호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문경숙·김현철·김지연·민경석 (자체번호 08-R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문경숙·김현철·김지연 외 5명 (자체번호 08-R14-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 교육·가족·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현철·문경숙 외 11명 (자체번호 08-R14-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1**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김지연·소경희·김진화·강영배 (자체번호 08-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2**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도구 활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최동선·임언·이수영 (자체번호 08-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3**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태준·윤혜경 (자체번호 08-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4**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자율적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기현·김지연·장근영 (자체번호 08-R15-3)

■ 수시과제

- 08-R16 신정부 청소년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 윤철경·김영지·김기현·오성배
- 08-R19 청소년의 세대특성 및 세대간 소통방식에 대한 연구 / 배규한·이창호

■ 용역과제

- 08-R17 국립 영덕 청소년 환경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 김영한·서정아
- 08-R18 청소년의 국가관·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 오해섭·김형주
- 08-R20 초등학생용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최인재·백혜정
- 08-R21 2008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08-R22 2008년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오성배·김희진
- 08-R23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기금 위탁사업 평가연구 / 김기현
- 08-R24 아동청소년정책 57개년 기본계획연구 / 김현철·이경상·조혜영
- 08-R2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형 개발연구 : 학교 내 설치를 중심으로 / 조혜영·김호순
- 08-R26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안전지표 개발 / 성운숙
- 08-R27 아동청소년정책통합에 따른 국립수련원의 사업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08-R28 한강특성공원 청소년원드서핑교육사업 평가 / 임지연
- 08-R29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오성배 · 강태중 · 이기범
- 08-R30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변화에 따른 급수별 자격연수 교과과정 개발연구 / 이춘화 · 김영한 · 박철웅 · 이상진
- 08-R31 2008 아동청소년백서 발간 / 김기현 · 이창호
- 08-R3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 · 김지연 · 이경상
- 08-R33 아동청소년권리지수 개발연구 / 이해연 · 김영지 · 김신영
- 08-R34 2008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 · 홍성례
- 08-R35 청소년 유해업소 구분기준 및 지역사회 유해환경 감소방안연구 / 김영한 · 김희진
- 08-R36 2008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 / 김경준
- 08-R37 2008서울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 · 김형주
- 08-R38 2008청소년시설종합평가 / 윤철경 · 김경준 · 김영지 · 최창욱
- 08-R39 청소년글로벌 역량지표개발 및 활용방안연구 / 오해섭, 문경숙, 권일남, 김소희
- 08-R40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 맹영임 · 임경희
- 08-R4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 성운숙 · 김경준 · 김영지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8-S01-1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 (3.28)
- 08-S01-2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대화」 (5.6)
- 08-S02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 방안 모색」 (5.27)
- 08-S03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II 자료집」 (7.8)
- 08-S04 「체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 입법례 국제비교」 (8.22)
- 08-S05 「청소년발달 지표의 현황과 과제」 (9.2)
- 08-S06 「청소년기 사회화에 관한 한일비교」 (9.16)
- 08-S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과 추진과제」 (9.19)
- 08-S08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9.26)
- 08-S09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9.30)
- 08-S10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III -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개발」 (9.26)
- 08-S11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1차 Workshop」 (9.26)
- 08-S12-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 (10.24)
- 08-S12-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I」 (10.28)
- 08-S13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10.17)
- 08-S14 「청소년 세대특성 및 미래의 교육전망」 (10.17)
- 08-S15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태 및 방향성 모색」 (10.14)
- 08-S16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복지정책 발전 방안 모색」 (10.17)
- 08-S17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10.17)

- 08-S18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10.16)
- 08-S19 「제5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18)
- 08-S20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2차 Workshop」 (11.24)
- 08-S21 「이동·청소년 참여권 - 한·일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의식 실태」 (11.28)
- 08-S22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3차 Workshop」 (12.22)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1호 (통권 제48호) / 학술정보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2호 (통권 제49호) / 학술정보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3호 (통권 제50호) / 학술정보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4호 (통권 제51호) / 학술정보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연구보고 08-R01-1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 쇄 2008년 12월 22일

발 행 2008년 12월 2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전화 (02) 786-2999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730-7(93330)

ISBN 978-89-7816-728-4(93330)(세트)